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11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①
시에 만나요!

OPERA
하이라이트

헨젤과 그레텔

HÄNSEL UND GRETEL

2015. 2. 13 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ROGRAM

홈퍼딩크 • 헨젤과 그레텔 하이라이트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30%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지휘·헤설 이동신



연출 유철우



헨젤 김수현



그레텔 신민원



야마·마녀 성미진



아빠 이병웅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예술의달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FEBRUARY vol.278

02

예술의달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FEBRUARY
vol.278



Cover Story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만감습니타 신임 부산시립예술단장 김규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전속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역사의 디오라마 부산해안경관조망공간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제2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Wolfgang Amadeus Mozart-

강림문화재단



예술감독 오충근(지휘)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출연
고소현(바이올린신동)



임수정(피아노)



박대용(바리톤)



김유섬(소프라노)



2015. 2. 26(목)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교향곡 제41번 작품551 '주피터' 4악장
Symphony No.41 in C Major, K.551 IV. Finale : Molto allegro

오페라 '돈 조반니' 중 <우리 두 손을 맞잡고>
(La ci darem la mano) from Opera 'Don Giovanni'

피아노협주곡 제21번 작품467 2악장
Piano Concerto No.21 in C Major, K.467 II. Andante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작품216 1악장 外 수 곡.
Violin Concerto No.3 in G Major, K.216 I. Allegro

| 주 최 | 부산 KNN 강림문화재단

|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특 별 후 원 | |주|강림CSP LSB 임수복장학재단 (주)강림오가닉 바이오콤 (주)삼비 강림유치원

| 무 료 초 대 권 | KNN 051-850-9344 KNN 홈페이지 (www.knn.co.kr 선착순마감)
| 신 청 및 문 의 |

국악 한마당

설맞이



2015년 2월 18일(수)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ROGRAM

- ▶ 관악합주 [함녕지곡]
- ▶ 현악합주 [수요남곡]
- ▶ 판소리
- ▶ 산조합주
- ▶ 무용 [태평무]
- ▶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 [판굿]

Contents

·
·
·

2015
FEBRUARY
vol.278



- 06 커버스토리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Cultural Story

- 08 공연 일정
- 10 반갑습니다
신임 부산시립예술단장 김규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 1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동시대 일본연극이 그리는 SF 마츠이 슈 작·연출 <농장(FARM)> _이홍이
- 16 불멸의 거장_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리더십 교훈 _송홍한
- 18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역사의 디오라마 부산해안경관조망공간 _강기표
- 20 그곳에 가면
문화예술플랫폼 B
- 22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시의사회합창단 메디코러스
- 24 테마가 있는 여행
해뜨는 도시 포항으로 떠난 신년 여행



Boards Inside

- 29 프리뷰
- 34 리뷰
- 36 프로그램 가이드
- 50 새로운 음반
- 51 새로운 책
- 52 스페셜 무비
- 53 스페셜 이벤트



Center News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5년 2월호 통권 278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관), 051 607 6222(아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연 발행일 2015년 1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

지난 한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창작극으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만나온 부산시립극단이 또다른 문제작 ‘다른 피’로 2015년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3월 2일(월)~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0,000원(전화예매시 청소년 50% 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51

3월 2일부터 일주일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연극 ‘다른 피’는 지난해 가을 ‘연극집단 반’이 대학로 무대에 올려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 당시 연출을 맡았던 ‘연극집단 반’ 대표 박장렬이 부산 시립극단의 연출을 맡아 초연의 감동을 부산에서 재현한다.

연극 ‘다른 피’는 영화 ‘해무’의 원작자인 김민정 작가의 신작으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켜 참혹한 과거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과 시대적 부조리를 무대에서 재현한다. 특히 ‘블랙리얼리즘’을 표방한 ‘다른 피’는 현실을 재현하고 모방하는 리얼리즘이 아닌, 현실 뒤에 감추어진 어둡고 참담한 진실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위안부 문제와 연쇄살인을 접목시킨 과감한 구성과 예고살인을 통해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대담한 기법,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다양한 시도로 극적 몰입도를 높여주는 이 작품은 지난해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작으로 선정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제1회 종로구 우수연극 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기 만화작가 강준의 자살과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 ‘이혈(異血)’. 강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풀어야 하는 두 형사와 여성 프로파일러. 한·일 간의 가해와 피해의 역사 속에서 일그러진 괴물로 표현된 만화 속 주인공 강준은 일곱 명의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로, 그의 마지막 살인의 대상은 만화가 불길에 소실되면서 의문부호로 남긴다. 과연 죽기 전 강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잔인한 연쇄살인으로 인한 피의 보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한 만화가의 이야기를 담아낸 연극 ‘다른 피’는 주인공 강준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다이내믹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그가 결국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온 치유되지 못한 역사의 상처임을 보여준다.

‘다른 피’의 원작자인 작가 김민정은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극작을 전공한 재원으로, 연극과 영화 다방면에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담한 작품의 도입과 스피드 있는 전개, 완벽한 결말과 관객을 위해 남겨두는 에필로그까지 가장 이상적인 작품의 구성을 보여주는 작가 김민정은 2004년 제7회 국립극장 신작희곡페스티벌에 ‘가족의 왈츠’가 당선된 이후 2005년 작은신화 우리연극만들기에서는 ‘십년 후’가, 2007년 서울연극제 ‘희곡아 솟아라!’ 신작희곡에서는 ‘나, 여기 있어’가 당선되었고, 같은 해 한국연극지가 선정



연출가 박장렬

작가 김민정

한 2007 한국연극베스트 7에 ‘해무’가 선정되기 했다. 2008년에는 연극 ‘해무’로 제26회 전국연극제 은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심상보 감독의 영화로 제작되어 전국에 상영되기도 하였다.

‘연극집단 반’의 대표, 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 박장렬은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한 이후 ‘연극집단 반’의 창단 대표 및 상임연출을 역임했으며,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의 3기 동인이기도 하다. 1984년 연극계 입문 이후 30여년간 대학로를 지켜온 박장렬은 희곡 ‘72시간’ ‘나무물고기’ ‘엄마의 18번’ ‘대빵 큰 고래의 꿈’ 등을 집필한 작가로, 연극 ‘가족의 왈츠’ ‘십년 후’ ‘해무’ ‘나 여기 있어’ ‘72시간’, ‘미리내’ ‘신발 뜨겁고 격렬한 인생’ ‘레미제라블’ 등의 연출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박장렬은 세밀하면서도 섬세한 터치로 배우들의 능력을 120% 끌어내는 연출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현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김은희, 엄지선, 황창기,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이재찬, 임신호, 김성열, 정인옥, 엄지영, 채민수, 김제형, 김민정, 이연진, 정옴 등 부산시립극단 전 배우가 무대에 오른다.

CULTURAL SCHEDULE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박현정 클래스 음악회 16:00 무료/박현정(010-3861-8494)	2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가족음악회'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3  새봄을 여는 4인 음악회 'To Voice to Klavier' 19:30 균일 3만원 오세민(010-2330-0994)	4	5	6  부산시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광역시 남구청(607-4067)	7  부산시민 초청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사랑과 감사의 신년음악회 'Together' 19:00 무료/월드비전(862-9090)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16:00 무료(선착순) 부산문화회관(607-6052)
8  M+ BRAIN 무용단 정기공연 '실종' 19:00 5천원 · 3천원 M+ BRAIN 무용단(808-1177)  2015 겨울음악 페스티벌 16:00 무료/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010-2802-2883)	9	10  무지카비바 제22회 정기연주회 'Happy 2015 with 왈츠' 19:30 균일 2만원 박경희(010-2888-0292)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최윤화(010-4171-7610)	11	12   부산시립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민요와 애창곡의 향연'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13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월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 헨젤과 그레텔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4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627-8088)  토요일상설무대-젊은소리 쟁이 16:00 무료(선착순) 부산문화회관(607-6052)
15  2015 겨울음악 페스티벌 16:00 무료/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010-2802-2883)	16	17  TDC 자선 엔젤단 결식아동돕기 기금 마련 자선음악회 19:30 무료/금성빈(010-4248-6828)	1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설맞이 국악한마당' 17:00 무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2123)	19	20	21
22	23	24  러브 바이올린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김윤영(010-3873-8757)	25  EBS 모여라 댄동맹! 14:30, 16:30, 19:00 무료/EBS(02-526-2795)  김수현, 고소은 피아노 연주회 15:00 무료/참기획(010-4016-7477)	26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모차르트' 19:30 초대/KNN(850-9344)	27  토브남성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토브남성합창단(646-4933, 010-8610-3930)	28  디미트라 테오도슈와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17:00 균일 3만원/우리아트(920-9545)  부산시 의사회합창단 '메디코러스' 창단연주회 18:00 초대/메디코러스(647-0378)
3/1   내추럴리 세븐 내한공연 in 부산 17:00 9만 9천원 · 7만 7천원 · 5만 5천원 3만 3천원 지니콘텐츠(02-568-8831)	3/2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51~2)	3/3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51~2)	3/4  BTN 개국 20주년기념 '나무아래 앉아서' 특집공개방송 '함께 걷는세상, 아름다워라' 14:00 무료/BTN(02-3270-3431)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51~2)	3/5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51~2)	전시실 3D 문화유산 답사전(아름다운 우리 국보)-대전시실 1월 4일(목)-3월 1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30~ 오후 8:00(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입 장 료 : 일반 1만 2천원 · 학생(초중고) 9천원 · 미취학아동, 장애인, 경로 7천원 (단체 20인이상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현장 카드 제시시 20% 할인) 문 의 : 휴엔마커스(607-6230, 070-7617-4004)	



김규옥

문화가 살아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신임 부산시립예술단 단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2015년 부산광역시의 조직 개편으로 문화관광국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변경되면서 김규옥 경제부시장이 부산시립예술단 신임 단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8월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김규옥 부시장은 부산의 문화와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산 출신 관료로 취임과 함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을미년 업무 시작과 함께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김규옥 부시장은 행시 27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정부 주요 분야를 거친 경제 분야 전문가이다. 바쁜 업무 중에도 평소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즐기며 김규옥 부시장은 취임 후 틈틈이 공연 관람을 즐기며 부산시민, 부산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해왔다.

“경제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를 보면 문화가 융성한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융성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부를 창조하는 시대인 만큼 도시의 문화적 저력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자, 도시의 매력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민선 6기 부산시정의 비전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인 만큼 경제부시장으로, 부산시립예술단장으로 어깨가 무겁다. 김규옥 부시장은 시정 전반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문화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창조문화 도시를 건립한다는 목표로 문화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문화생활 일상화를 위해 시민 참여와 향유의 문화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문화행정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간섭보다는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그는 자율성을 높이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새로운 문화융성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립예술단도 민간단체와 꾸준히 교류하며 상생하고 부산다운 문화를 재창조해야한다는 김 부시장은 지난해 '2014 ITU 전권회의'를 치루면서 상대적으로 부산다운 문화를 보여 주지 못했던 것을 많은 아쉬움으로 꼽는다.

“ITU 전권회의는 세계 170여개국의 장·차관급 140여명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3,000여명이 참석한 세계적인 행사였는데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부산지역 공연장에서는 그들에게 부산을 보여줄 부산다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때문에 부산시 문화관광국을 총괄하는 수장, 부산시립예술단장으로 어깨가 더욱 무겁다.

부산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이 보유한 문화자원들을 전승, 보존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부산만의 문화자원들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 스토리텔링 작업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차원에서 개선 발전 시켜나가려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김규옥 부시장은 부산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부산문화 발전의 힘이라고 항상 강조한다.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도시, 문화가 융성한 도시에 경제활동이 융성해져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갈증을 풀어주고 한편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나 영화·영상, IT산업 등 젊은 사람들이 부산에 머물 수 있는 산업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산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규옥 부시장. 그의 열정으로 새롭게 그려나갈 부산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동시대 일본연극이 그리는 SF

마츠이 슈 작·연출 <농장(FARM)>



연출가 마츠이 슈

SF라는 장르를 최초로 구축한 사람은 영국의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로 알려져 있다. 그가 1895년에 발표한 <타임머신(The Time Machine)>은 시간여행을 하는 내용의 공상과학소설로, 이 참신한 발상은 이후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변주되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SF영화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더욱 자주 SF를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극은 어떨까? 어쩐지 SF장르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흥미로운 역사가 있다.



‘로봇’이라는 말의 창시자는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Karel Capek)인데, 그는 1920년에 발표한 희곡 <R. U. R>에서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초창기의 SF가 급격한 산업발진으로 기계화되는 현재의 창을 통해 미래를 전망했다면, 점점 현재의 우리 모습을 성찰하고 그 나뭇잎의 철학을 담아내는 작품들이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버블경제시대였던 1980년대에 일시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사이보그 연극들이 지금 동시대의 SF연극들과 다른 것은 그 작품들이 비추고 있는 현재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도쿄에서 공연 중인 <플루토(Pluto)>(2015년 1월 9일~2월 1일, 분카무라 씨어터 코쿤)는 우라사와 나오키(浦沢直樹)와 나가사키 타카시(長崎尚志)가 테즈카 오사무(手塚治虫)의 아톰 <지상최대의 로봇>을 리메이크한 만화를 무대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까지 느끼게 하는 공연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보통 SF장르를 마주하면서 특수한 기계나 개조된 인간을 떠올린다. 낯선 것은 곧 흥미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판타지는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그런데 작년에 초연된 마츠이 슈(松井周) 작, 연출의 <농장(Farm)>(2014년 9월 19일~28일, 도쿄예술극장 씨어터 웨스트/10월 11일~12일, 기타큐슈 예술극장 소극장)이라는 연극은, 흔히 알고 있는 SF와는 전혀 다른 판타지를 보여주었다. 이 작품 속의 낯설음은 오락거리로서가 아닌, 기괴한 느낌으로 존재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츠이 슈가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흥미로운데, 돼지 몸속에 인간의 내장을 성장시키는 실험이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만약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사람의 몸을 농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명 생명과학, 재생의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를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이야기는 이혼, 재혼, 결혼과 같은 가족을 둘러싼 일상적인 내용이 주다. 약 1시간 45분 동안, 막 구분 없이 총 14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집중하게 된 것은, 그로테스크한 허구를 바탕 위로 인물들의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 겹쳐졌기 때문일 것이다.

연극은 커피숍에서 젊은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아빠’ 때문에, ‘엄마’는 화가 나있다. 아빠는 3년이나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엄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슈퍼마켓 ‘점장’과 재혼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에는 ‘오렌지’라는 아들이 있다.

예전에 이 부부는 불임치료 중에 각종 유전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성공 시 ‘유전자 조작’을 시행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마침 아빠가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문가라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 오렌지는 일반인보다 성장이 세 배 빠른 몸으로 태어났고, 면역에 대한 거부반응이 전혀 없어 타인이나 동물의 신체 일부를 배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팜(Farm)’이라는 실험대상이 되었다. 현재 그는 10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부모와 비슷해 보인다. 특이사항은 그에게는 성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아들을 평범하게 키우고 싶은 엄마도, 전문가인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아빠도,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지 못 한다. 이혼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결국 이 미지근한 전개는 인물들을 지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엄마가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는 키스조차 허락하지 않자, 그녀의 애인



인 점장은 괴로워한다. 그러다 그는 괴상한 종교 의식(?)에 빠져있는 단골술집의 '마담'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힐링의식이라는 명목 하에 성관계를 가진다.

한편, 오렌지는 어느 '노부인'의 죽은 강아지 눈알을 자기 몸에 배양 중이다. 노부인은 그를 만나러 오는 것이 유일한 삶의 낙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렌지에게 위암이 발병하고, 전이를 막기 위해 배양 중인 강아지의 눈알을 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 사실에 절망한 노부인은 자신의 위를 떼어 주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오렌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아마도 그에게는, 그렇게까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노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다행히 오렌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그는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아빠를 따라 연구실에 남기로 한다. 드디어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고, 두 사람은 이혼을 한다. 그러나 엄마는 점장과 헤어진 뒤 슈퍼마켓에서 고속 승진을 하고, 점장은 일을 그만 두고 마담을 도우며 주말에는 채소농장을 가꾸며 산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오렌지의 암이 재발하고, 그는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 사이 그의 몸은 노인이 되어있고, 또 노부인과 결혼을 한 상태다. 마지막 생일, 움직일 기력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를 위해 모두가 모인다. 그날 그는 조용히 아빠에게 자신의 세포를 일부 가져다 자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아빠는 그에게 뇌를 살려둘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는 미련 없이 죽음을 선택한다.

얼마 후, 무대는 곧 오렌지의 장례식장이 되어있다. 그의 세포로 노부인은 임신해 아이를 낳을 꿈에

부풀어있다. 그리고 여전히 바빠 보이는 아빠의 뒷모습을 엄마가 바라보며 연극은 끝이 난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시간의 흐름이나 장면의 전환을 알리는 음악에는 무대 양 끝에 놓인 믹서나 선 풍기의 소리도 함께 들려온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가까운 기계들이 내는 소리다. 심지어 친숙하기까지 하다.

사실 이런 느낌은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서울(4월 4일~5일, 백성희장만호극장)과 대전(4월 6일~7일)에서도 공연된 히라타 오리자의 〈사요나라〉(2010년 초연) 역시, 사람을 닮은 진짜 로봇 안드로이드(제미노이드 F)를 무대 위에 올려 지극히 평범한 대화들을 이용해 일상을 만들어냈다. 체홉의 〈세 자매〉를 각색, 일본의 근미래로 무대를 옮긴 '안드로이드 버전 〈세 자매〉'(2012년 초연)에서도, 히라타 오리자는 안드로이드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면서, 여전히 소소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일본 중산층 가정의 일상을 그렸다.

어느새 에어컨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로봇 청소기가 집안을 누비는 광경이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미래는 그다지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따라서 마츠이 슈나 히라타 오리자가 전망하는 미래의 풍경은 언제나의 우리 모습이다. 어떤 첨단과학이 인류의 삶에 침범을 하더라도, 늘 사람은 사람을 원하다 서로를 상치 입히기도 하고 서로를 치유해주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을 농장으로 만드는 기상천외한 일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석에는 조용히 눈물을 닦는 관객들이 보였다. 현실세계에서도 이처럼 괴기스러운 비일상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까? 공상이 또 다른 공상을 낳는 작품이었다.

셰익스피어의 리더십 교훈

작년 7월호부터 지난 1월호까지 일곱 회에 걸쳐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를 장르별로 소개하였다. 그의 문학이 지니는 보편성과 다양성이 우리가 사는 세계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은 끊임없이 인정되어 온 바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비즈니스와 경영에 관한 셰익스피어의 통찰력은 20세기 말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38편에 이르는 그의 극작품에는 인간성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창조적인 해안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효용성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왕들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의 비극과 사극을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극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문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리더십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존 휘트니 & 티나 팩커 공저, 송홍한 역,
〈리더십 3막 11장〉(Power Plays, 2003)

셰익스피어의 관중과 독자는 그의 문학을 통해 그가 묘사하는 인간성과 인간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현대적 상황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실용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다양한 인간의 심리, 생활, 철학이 담겨 있다. 그의 극은 갖가지 인간사를 그려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특히 심오하게 다룬 주제들 중의 하나가 리더십이다. 그는 비극과 사극을 통해 권력을 쥔 사람들의 고뇌와 허세, 전략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복잡 미묘한 인간 심리를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묘사했다. 권력은 정치권력 뿐 아니라 경영자의 권력에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그의 극작품을 단순히 재미삼아 관람하고 읽는 경우, 일반 관객이나 독자는 그런 교훈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리더십을 논의한 안내서를 통해 그런 관점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그의 희극 〈뜻대로 하세요〉를 사랑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추방된 올란도와 로잘린드의 사랑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주체적인 여성의 행동양식으로 읽게 되면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의 리더십을 접하게 될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은 표면적인 스토리에 따라 남녀의 사랑이나 개인적인 비극을 다루는 것으로 읽지 않고 관객이나 독자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치적, 경제적인 주제나 교훈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그의 극은 비극이든 희극이든

사극이든 어떤 장르이든 인간과 현실세계를 보는 실용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하게 된다. 위대한 문학작품으로서의 셰익스피어의 극은 인생과 세계에 대한 무한한 지혜를 담고 있는 끝없는 광맥과 같아서 시대가 바뀌어도 그 시대에 적용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 리더십 교훈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그의 리더십 교훈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국내에 번역된 몇 권의 관련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리더십의 교훈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셰익스피어의 리더십 교훈에 대한 저서들은 그 성격상 전문적인 학술서라기보다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한 안내서의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이다. 2000년도에 도발적인 서명으로 번역된 〈셰익스피어를 모르면 21세기 경영은 없다〉(노먼 오거스틴 외 공저; 홍윤주 옮김)가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되었다. 원제는 직역하면 〈관리를 맡은 셰익스피어〉(Shakespeare in Charge)이다. 이 책은 2008년에 〈셰익스피어 경영〉이라는 새로운 역서명으로 다시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 책은 다섯 가지의 핵심적인 경영 토픽들을 각기 하나의 극작품에 적용시켜 논의하고 있다. 리더십에 대하여 〈헨리5세〉, 변화에 대처하기는 〈말괄량이 길들이기〉, 각자의 역할 만들기는 〈줄리어스 시저〉, 위험관리는 〈베니스의 상인〉, 그리고 위기관리 능

력에는 〈햄릿〉을 논의한다.

이듬해인 2001년에 〈주식회사 햄릿—CEO를 위한 셰익스피어 매니지먼트〉(롤프 브라이텐슈타인 지음, 박익춘 옮김)가 출간되었다. 영어 아닌 독일어로 쓰인 저서여서 셰익스피어의 위상을 돋보이게 한다. 원제는 〈오셀로 햄릿 주식회사〉(Othello, Hamlet und Co.)이다. 햄릿, 리어 왕, 이아고, 포샤, 맥베스 부인 등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을 통해 오늘날의 경영지도자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다. 과중한 업무를 물려받고 감당 못하고 주저하는 재벌 2세는 햄릿이고,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후계자를 결정하여 불행한 말년을 보내는 사업가는 리어 왕이다. 또한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남편의 출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부추기는 여성은 맥베스의 부인이고, 일 중독증 환자인 직장동료는 체텔이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11개 작품들을 CEO를 위한 경제사회 드라마로서 접근하고, CEO들이 인용할 만한 100여개의 명언들을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3년도에 셰익스피어의 리더십과 경영 교훈을 다룬 〈리더십 3막 11장〉(존 휘트니 & 티나 팩커 공저, 송홍한 옮김)이 출간되었는데, 원제가 〈권력극〉(Power Plays)인 이 책은 경영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에게도 요구되는 리더십의 본질과 실천기법 및 완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셰익스피어의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사용된 관련 구절들을 인용하며 풀어낸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의 교수이자 기업회생 전문가인 휘트니와 매사추세츠 주의 셰익스피어 극단 대표인 팩커는 남녀의 관점을 서로 보완하며 환상의 콤피가 되어 셰익스피어 극에서 경영 리더십의 교훈을 찾아낸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권력의 장이라고 정의내리고, 모든 조직의 리더들이 당면한 문제와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사극은 물론 희극까지 거론하면서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간다. 이 책은 경영지도자 뿐만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 오르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을 셰익스피어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명한 책이다.

이밖에도 셰익스피어의 리더십 교훈을 다룬 영어로 쓰인 저서들 중에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책들도 많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셰익스피어의 리더십 교훈을 다룬 이런 안내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런 교훈에 주목하고 그의 극을 읽어나가면, 그의 극에 나타난 인물들에게서 오늘날 다양한 유형들의 경영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리처드 2세와 리어왕과 안토니는 권력을 신성불가침의 권한으로 생각하다가 몰락하여 수치스럽게 죽게 되며, 리처드 3세와 맥베스 및 코리올레이너스는 권위가 권력을 조장하여 쟁취하는 능력에 있다고 믿다가 치욕적으로 죽어간다. 반면, 헨리 5세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영웅적이고 성공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군대라는 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2013년도에 출판된 리처드 올리비아(Richard Olivier)의 〈영감의 리더십〉(Inspirational Leadership)은 우리말로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헨리 5세의 영감을 주는 리더십의 비밀을 파헤치는 저서로서 주목된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극에서 군주제 질서를 지지하며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비극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권력

을 남용하는 부정적인 리더십의 몰락을 보여줌으로써 군주제 안에서지만 민주적인 질서를 희구했음을 알 수 있다. 〈헨리 5세〉에서 왕권은 백성을 위한 외로운 리더십이자 부여된 의무이지 결코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셰익스피어가 성공적인 리더십의 모범으로서 내세우는 헨리 5세의 리더십은 백성에게 발전적인 영감과 긍정적인 용기를 준다. 아쟁쿠르 전투를 앞두고 병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병사로 위장한 왕은 자신의 고독과 두려움을 뒤로 한 채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며 참전을 독려한다. “우리는 소수, 소수지만 행복한 소수, 형제집단이라고./오늘 나와 함께 피를 흘리는 자는/나의 형제가 될 것이니”(4막 3장, 60-62)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백성과 목숨을 함께 하는 왕의 진정한 리더십에서 나오는 충정과 영감의 메시지이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실용성이 강조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인데도, 영미대학에서 수백 년이 지난 고전 극작가 셰익스피어를 경영강좌에 끌어들여 인기를 끄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극이 오늘날 경영 환경에서 꼭 필요한, 보편적인 인간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적인 경영서적에서 찾기 어려운 풍자와 유머가 있고, 인간성을 통찰하는 해안과 탁월한 묘사와 주옥같은 명언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의 문학에는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압투, 신뢰와 불신, 사랑과 질투, 허세와 겸손 등 수많은 주제가 살아 숨 쉰다. 그의 문학을 통해 인간성과 인간행동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개인적인 삶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리더의 덕목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인제 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① 제1조망공간 ©윤준환
② 제3조망공간과 카페 _©윤준환
③ 제2조망공간 ©윤준환
④ 제1조망공간에서 바라다본 부산항_©강기표

역사의 디오라마 부산해안경관조망공간

부산하면 바다를 떠올린다. 실상은 이름에 산(山)자를 품고 있고, 온통 산으로 둘러 쌓이며 바다와 면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예들러 갈 길이 전혀 없는 외길이었다. 1961년 영주동과 동대신동을 잇는 부산터널이 생기고 1964년 산복도로가 개통되었다. 산복도로(山腹道路)는 산(山)의 중턱(腹)을 지나는 도로를 뜻한다. 당시 부산이 새로운 근대적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였다. 길이 막히면 속절없던 부산에 둘러가고 질러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산복도로 위 아래를 흐르는 영주동과 초량동은 한국전쟁 때 밀려 내려온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삶을 부지하기 위해 지은 산비탈의 판자촌이었다.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 대다수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판잣집처럼 그대로 눌러앉았다. 판잣집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블록조적조 건물에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바뀌며 소규모 건축물의 밀집 지역으로 변해왔다.

부산 해안의 풍경과 시간을 조망(View) 하다.

‘역사의 디오라마’는 부산역에서 중앙공원을 가는 산복도로(망양로, 영주로) 중턱 영주 삼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설계자인 조서영 건축가¹⁾(이상석²⁾ 건축가와 협업)는 “드러난 듯, 숨은 듯 오랜시간 제자리를 지킨 것 같은 장소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설계하였다”고 한다. 그 곳을 지나다 보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금은 궁금해할 수 있는 조그마한 3동의 건축물은 부산의 자연과 근대와 미래 그리고 문화를 모두를 조망할 수 있는 ‘해안경관조망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바다가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옛 정자와 같이 지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을 맡은 우신구 교수³⁾는 4가지의 개념을 갖고 부산의 해안 경관을 보았다고 한다. 첫째는 옛 선인들의 심상 속에 간직된 다채로운 ‘부산해안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관조(觀照, Look)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굴곡진 근대사가 적층되고 압축된 ‘부산해안의 근대경관’을 반성하고 남고(覽古, Watch)⁴⁾함이고, 세 번째는 산업화 시대의 해안공간을 예술화한 ‘부산해안의 문화경관’에 대한 평가와 응시(凝視, Stare)이고,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메트로폴리스로서 ‘부산해안의 미래경관’에 대한 상상과 전망(展望, Foresee)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복도로 그리고 계단과 골목

산복도로의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건 계단과 골목이고 조그마한 1,2층의 주택들이다. ‘역사의 디오라마’ 또한 계단과 좁은 길로 공간들을 연결하고 있다. 진입은 망양로에서 계단으로 아래로 이어지며 카페공간의 옥상인 제3조망공간을 맞이한다. 이어 골목 같은 좁은 산책로는 쉼터를 스치며 제2조망공간과 제1조망공간을 연결한다. 제1조망공간은 옛 부산진성의 지성인 자성대와 한창 재개발중인 북항을 디오라마 같이 펼쳐 보이고, 영도와 봉래산 풍경을 볼 수 있는 제2조망공간을 지나 길게 뻗은 나무 데크 산책로를 걷다보면 산복도로의 빼곡히 박혀있는 주택의 옥상들을 만나게 된다. 제3조망공간의 아래 카페에서 차 한 잔의 휴식 후, 다시 산책 계단을 오르면 망양로와 접하게 되며 중앙공원과 민주공원으로 오른다.

입체적 공간과 경관의 프레임

건축의 형태는 매우 단순하다. 노출 콘크리트의 프레임은 골목과 계단을 은유하며 종이접기 하듯 접어지며 공간을 만들고 있다. 마치 골목이 하늘로 접어지며 입체적 공간과 프레임으로 그리고 다시 경관의 창으로 만들고 있다. 건축에서의 창은 환경적 목적 이외에도 도시나 자연을 담은 액자로서의 기능도 매우 크다. ‘역사의 디오라마’라는 건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프레임과 창은 도시를 담고 자연을 담고 미래를 담고 있다.

1) 조서영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서원건축사사무소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이사, 동의대 겸임교수를 역임, 현재는 동서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 중이다. 주요작품으로는 ‘글마루 작은도서관’, ‘푸른솔경로당’, ‘보수동 주민센터’, ‘범천동 버스정류소’, ‘중앙동 지하철역 북하우스’ 등이 있고,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신인건축가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부산다문건축상, 국토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 이상석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홍익대 건축도시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1년부터 건축사사무소 상상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글마루 작은도서관’, ‘푸른솔경로당’, ‘보수동주민센터’, ‘시랑리 트라니야’, ‘홍티 아트센터’ 등이 있다.

3) 우신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1년 영국 외무성 장학금으로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부산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및 재생, 도시 디자인 등을 통해 인간을 위한 좋은 도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제15회 일맥문화대상(2014년)을 수상하였다.

4) 남고(覽古)

고적을 찾아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하다. ‘회고(懷古)’와 같은 뜻이며, 이백(李白)의 시 제목 ‘소대람고(蘇臺覽古)’에서 유래하였다.

함께 만들고 즐기고 나누는

문화예술플랫폼 B

Culture and Art Platform B



“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부족한 북구지역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고 나누는 주민 밀착형 문화공간이 지난해 12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구포역 인근에 자리한 ‘문화예술플랫폼 B’가 바로 그 곳으로, ‘문화예술플랫폼 B’에는 북구의 근대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근대역사관과 다양한 예술창작 체험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들어서 있다.



철길 옆 노후주택 2채를 매입해 새롭게 조성한 ‘문화예술플랫폼 B’는 지상 2층 연면적 352㎡ 규모로, 지하 주차장에는 입주작가 정종훈 씨가 운영하는 ‘우리 동네 목공소’, 2층은 북구근대역사관과 아트카페, 3층은 입주작가 창작공간과 창작 커뮤니티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1층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북구근대역사관이 관람객을 반긴다. 과거 낙동강을 중심으로 물류 집산지로 명성을 날렸던 구포를 비롯한 북구의 근대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 넓지 않은 공간임에도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북구의 발전상과 지도로 보는 북구의 변화에 서부터 북구지역의 유물과 유적 안내, 구포나루터, 구포다리, 구포시장, 구포학교 등 구포의 옛 모습,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영상관, 구포 출신의 독립운동가 윤상은 선생을 기리는 전시관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다. 북구근대역사관을 관람한 후에는 인근



철길 방음벽에 조성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역사테마벽화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북구근대역사관을 지나 만나는 아트카페는 입주작가들의 다양한 생활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공간이자 누구나 차 한잔 하며 쉬어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현재 문화예술플랫폼 B에는 공예작가 14명이 입주해 있다. 도자기(문규봉), 칠보공예(배지원), 은공예(김진아), 패브릭공예(임정숙), 가죽공예(김귀란), 퓨전구방공예(오현정), 재활용수공예(전영주), 목공예(정종훈, 이현정), 스탬핑 주얼리(송하연), 초상화·캐릭터(조유림), 인형옷(권수진), 업사이클링 아트(김예슬), 핸드메이드 제과·제빵(진수진) 등 그 장르 또한 아주 다양하다. 아트카페를 방문하면 입주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드는 소품은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다. 또, 한 칸에는 예술 관련 도서와 함께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2층 창작공간에서는 지역민들이 다양한 예술창작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입주작가 14명이 강사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인문학강좌, 영화상영, 전시 및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개관축하행사 ‘물물교환 페스타+어쿠스

틱반향회 콘서트’에서는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누리기도 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 외에도 지역 동아리 모임, 워크숍, 세미나 등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사랑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예술플랫폼 B’에서는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북구스토리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포유적지를 출발해 구포시장, 구포만세길, 구포역, 구포다리, 구포왜성을 있는 코스를 비롯해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투어지로 선정,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적지 중심의 투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구의 곳곳을 파고들어갈 수 있는 생활문화 중심의 투어를 위해 스토리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러를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예술플랫폼 B’는 지난해 8월 위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문화공동체 지구인’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문화공동체 지구인’은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과 지역민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 운영시간/평일 오전 10:00~오후 6:00
(주말 오전 11:00 개관, 매주 월요일 휴관)
- 문의/문화예술플랫폼 B 333-5567

노래로 힐링하는 부산시의사회 합창단 메디코러스

“한주의 시작을 노래로 여는
멋쟁이 의사합창단
'메디코러스(Medi-Chorus)'.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흰 가운을 벗고
바쁘게 시민회관 연습실로 모여든다.
2015년 새해 시작과 함께
2월 28일로 예정된 창단연주회를 위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메디코러스는 환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음악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25명의 의사들로 구성된
혼성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의사는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면서도 감성에 치우쳐 의학적 판단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성적 냉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종보다 더 차가운
이성을 갖도록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공존을 노력하고 있는 '메디코러스'는 2011년 결성된 부산
시 남성의사합창단에서 출발했다. 노래를 좋아하는 7명의 남자들로 출발, 크고 작
은 무대에 올라 주목받으며 동료 의사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부산시 남성의사합창단
은 여성 의사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2013년 지금의 혼성합창단 메디코러스로 재창
단하게 된 것. 현재는 남성단원 15명, 여성단원 10명이 매일 노래로 힐링하며 인생
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다.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
인 만큼 일에서 오는 어려움을 함께 풀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단원들간의 환상호흡
을 자랑한다. 영상의학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안과, 비뇨
기과, 신경외과, 병리과 등 단원들의 전공도 다양하다.

부산시 의사의 날 무대 최고의 스타로 무대에 올랐던 '부산시 남성의사합창단'의 공
연을 보고 먼저 입단한 친구 박정민 씨의 권유로 합창단에 합류하게 된 김이태 씨는
현재 단장을 맡아 메디코러스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우리 합창단 의사 선생님들 모두 노래를 좋아합니다. 나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나의 소리
와 다른 사람의 소리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화음을 만들어 내는
합창 활동이 힘든 병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진료실의 피로를 풀 겨를도 없이 빠짐없이 연습실로
모이는 단원들의 열정은 어느 합창단에 뒤지지 않는다. 연습
시간 배운 곡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핸드폰에 녹음해 틈틈이 연
습하고 근무중에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은 보
통. 창단 연주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요즈음은 100% 출석율
과 개인연습까지 진행하며 의욕이 넘친다.
“의사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지만 합창을 하면서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스스로 치유하고 힐링하
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이수정 지휘자는 음악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는 단원들의 열정과 변화를 보면 보람이 크다.
부산시 남성의사합창단 7명의 원년 멤버 중 한사람인 장유권
단원역시 변함없는 열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중, 고등학교 이후 악보 한번 본적 없는 초보였지만 용기를 내
어 합창단에 도전했습니다. 큰소리로 노래를 하다보면 진료과
정 중 받는 긴장감, 압박감 등을 날려버릴 수 있어 좋습니다.”

금녀의 성이었던 부산시 남성의사합창단의 문을 가장 먼저 두
드린 백미영 씨는 음악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동의대학교
예술종합콘서바토리 성악과(팝페라)에 진학해 본격적인 음악



수업을 하고 있다. 합창단 막내 단원으로 현재 악보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는 백미영 씨는 지난해 하병욱, 최희영, 한지원
단원과 '4doctors'라는 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백미영 씨의
도전에 힘을 얻어 올해 3월부터 이경신, 박선영 단원이 동의
대학교 예술종합콘서바토리에 진학해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
고 있다.
이번 창단 연주회는 단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그동안
부산합창제를 비롯해 부산시 의사의 날, 부산시 의사실험 총
회, 한남안과학회,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등 매년 5~6회의 연주회를 가져왔지만 청중들 대부
분이 동료 의사와 가족들이었다는 메디코러스 단원들은 창단
연주회를 계기로 한단계 도약, 메디코러스를 원하는 곳이 있
다면 연주 봉사 계획도 조심스럽게 세우고 있다.
'힐링과 나눔'을 주제로 이번 창단 연주회에서는 함께 나눈다
는 합창단 창단 취지에 맞추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
학금도 수여할 예정이다.





해뜨는 도시

포항으로 떠난 신년 여행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2015년 첫 테마여행이 지난 1월 9일 펼쳐졌다. 1월의 테마 여행지는 전국 최대의 일출 명소인 호미곶과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를 품고 있는 해뜨는 도시 포항. 청양(靑羊)의 기운으로 올해 테마여행의 첫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 43명이 1월 9일 이른 아침, 목적지인 포항으로 떠났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이번 테마여행의 첫 방문지인 포항운하관. 지난해 3월 준공된 포항운하는 남구 형산강 입구에서 북구 송도교 인근 동빈내항까지 1.3km에 건설한 폭 15~26m, 수심 1.7m의 소운하로, 40여년 동안 막혔던 형산강 물길을 되살리기 위해 조성됐다. 운하를 따라 산책로와 운하관, 인도교 등이 마련됐으며, 운하관에는 운하의 건설 배경과 과정 등을 소개한 전시실과 운하와 영일만 바다를 한눈에 구경할 수 있는 야외전망대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운하를 오가는 크루즈선이 인기를 끌면서 포항운하는 포항 여행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아쉽지만 크루즈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운하관을 돌아본 후 포스코로 발길을 옮겼다.

1968년 포항종합제철(주)로 설립, 2002년 3월 15일 지금의 사명(社名))으로 변경한 포스코는 국내 최초의 고로(高爐: 용광로) 업체로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2개의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광양제철소는 현재 연간 조강(粗鋼: 보통의 강철 제조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괴(鋼塊)로 한 나라의 강철 생산량을 알 수 있다) 생산 2300만톤의 생산체제를 구축해 단일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포스코에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우선 (주)포스코의 40여년 역사와 기업정신이 담긴 포스코역사관을 방문했다. 2003년 7월 개관한 포스코역사관은 국내 최초의 기업역사관으로,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던 당시 정부자료를 비롯해 (주)포스코 40여년 역사를 증언하는 다양한 전시물이 전시되고 있다.

역사관을 둘러본 후 본격적인 포스코 견학에 앞서 포스코 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포스코에서 파견한 해설사와 함께 270여만평 규모에 세워진 포항제철소를 꼼꼼히 돌아보았다. 특히 고체상태의 반제품을 롤러로 연속적인 힘을 가해 늘리거나 얇게 펴는 ‘압연공정’은 공장 내에 들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뜨거운 철 덩어리가 뿜어내는 열기와 냉각과정에서 뿜어져나오는 수증기로 가득

한 공장에서 자동화 공정으로 실재없이 진행되는 생산과정에 회원가족들의 탄성이 쏟아진다. 10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철강 불모지에서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한 포스코의 성공 역사를 보는 듯했다.

포스코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방문지인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로 출발했다.

‘일본인 가옥거리’로도 불리는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는 100여 년전 일제강점기 당시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진 구룡포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어업, 선박업, 통조림 가공공장 등 경제활동을 하며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던 곳이다. 약 470여 미터에 이르는 골목에는 당시 80여 채의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 28채 가옥의 외벽을 보수하고 바닥도 디딤돌로 포장해 일본식 거리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한 때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촬영장소로 각광을 받으며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의 관광명소로 즐겨 찾고 있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에는 구룡포 근대역사관과 구룡포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구룡포 근대역사관은 1920년대 구룡포 어업조합장을 지내면서 큰 부를 쌓았던 일본인 하시모토의 2층 일본 가옥으로, 일본 벽장인 ‘오시이레’를 비롯해 실내





난방장치인 ‘고타쓰’, 옷품을 막아주는 이층 덧문, 딸들이 사용하던 방과 용변과 목욕을 동시에 해결하던 화장실 등 전형적인 일본 가옥의 양식을 엿볼 수 있다. 또, 역사관 한쪽에는 구룡포의 전설과 일제강점기 전후 구룡포의 역사, 항일운동 기록 등을 전시해놓고 있다.

근대역사관을 둘러본 후 본격적인 구룡포 근대문화거리 탐방에 나선 정기회원들은 우선 거리 중심부에 자리한 구룡포공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구룡포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구룡포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곳에는 원래 일본인이 세운 신사와 구룡포항을 축조한 일본인 도가와 야사브로의 송덕비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구룡포를 상징하는 용(龍) 조형물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충혼탑이 서 있다.

“도가와 야사브로의 송덕비는 광복 이후 주민들이 시멘트로 덧칠, 훼손하면서 현재는 비문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비문을 복원하자는 이야기도 있으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계속 논란 중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아픔을 확인할 수 있었던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를 마지막으로 정기회원 가족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청양(靑羊)의 기운을 받으며 펼쳐졌던 포항 겨울여행. 2015년의 힘찬 시작을 알렸던 호미곶의 신년 일출처럼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2015년 부터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홀수달 둘째 주 금요일로 일정이 조정됩니다.
3월 경주여행을 희망하시는 정기회원들은 부산문화
회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홍보마케팅부 607-3100
마감 : 2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3월 13일(금)

9주년 기념 ‘다시 떠나는 경주 수학여행’

매달 둘째 주 금요일 펼쳐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9주년을 맞아 테마여행 첫 출발지 경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잃어버린 영화를 간직한 경주의 절터를 통해 찬란한 신라의 역사를 알아본다.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09:30 경주도착, 황룡사터, 사천왕사터, 남산동 상탑 탐방
12:00 중식
13:00 장항리 절터, 감은사터 등 탐방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6:00 부산으로 출발



감은사지

5월 8일(금)

하동 오감여행

지리산 국립공원과 맑고 푸른 섬진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청정 하동으로 떠나는 봄 여행.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 평사리 최참판댁, 하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차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매암차박물관’에서 오감여행을 즐긴다.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10:00 하동 도착, 평사리 최참판댁, 평사리문학관 방문
12:00 중식
13:00 매암차박물관 제다 체험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6:00 부산으로 출발



매암차박물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영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고,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 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 Life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소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29 프리뷰
- 34 리뷰
- 36 프로그램 가이드
- 50 새로 나온 음반
- 51 새로 나온 책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민요와 애창곡의 향연



지휘 오세중



부산시립합창단

2015년 제야 타종식 특별 무대를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희망찬 올미년의 시작을 알린 부산시립합창단이 2월 12일 제155회 정기연주회 ‘민요와 애창곡의 향연’으로 2015년 첫무대를 연다.

수석지휘자 오세중의 지휘로, 여성합창과 남성합창, 그리고 혼성합창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는 새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첫 무대는 여성합창으로, ‘The Hawaiian Wedding Song’, ‘When I dream’,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친구여’ 등 관객들이 좋아하는 팝송, 가요 애창곡으로 마련된다. 이어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남성단원들이 독일민요 ‘소나무여’, 러시아 민요 ‘망망대초원’, 미국민요 ‘철로공사’ 등 각국의 특색있는 민요를 웅장한 남성합창으로 들려준다. 1부 마지막 무대로는 부산시립합창단 전 단원이 우리민요 ‘새야 새야와 ‘밀양랩소디’, ‘정선아리랑’으로 관객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2부 무대는 새해를 맞아 관객들에게 신년의 기쁨을 한껏 고조시켜줄 무대로, 신년음악회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와 ‘봄의 소리 왈츠’를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관현악곡으로 널리 알려진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원래는 남성합창곡으로, 1867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폐허가 된 빈 시민들의 웃음을 음악을 통해 되찾고자 당시 지휘자였던 요한 헤르베크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게 합창곡을 의뢰하면서 탄생된 곡이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당시 도나우강을 노래한 카를 베크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이 시에 왈츠를 담아 곡을 완성했다. 이후 합창 부분이 빠진 관현악 왈츠로 재편곡되면서 ‘빈 왈츠의 대명사’로 오늘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또다른 대표곡인 ‘봄의 소리 왈츠’는 1883년 자신의 오페레

타 ‘유쾌한 전쟁’ 초연무대를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방문했던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어느 만찬회장에서 친분이 두터웠던 리스트와 살롱 여주인의 피아노 연탄 연주를 듣고 즉흥적으로 작곡한 곡이다. 원래는 소프라노 독창곡으로 작곡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관현악곡으로 많이 연주되고 있다. 이 곡은 마치 따뜻한 봄날, 산과 들에 지저귀는 새소리와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주고 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밝고 가벼운 왈츠이다.

일 시 | 2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특별기획연주회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헨젤과 그레텔'



지휘 & 해설 이동신



연출 유철우



메조 소프라노 김수현



소프라노 신민원



메조 소프라노 성미진



바리톤 이병웅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으로 브런치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웰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가 2015년에도 계속된다.

올해 역시 예술 장르의 총집합체라 할 수 있는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무대로, 오페라 작품 속 주요 장면과 유명 아리아를 전문 오페라 연출가의 색다른 연출과 지휘자의 상세한 해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월 13일, 2015년 웰빙콘서트시리즈를 여는 첫 번째 작품은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그림형제의 유명한 동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엥겔베르트 오페라크가 그의 누이인 아델하이트 베테가 쓴 대본에 의해 1893년 작곡한 독일어 오페라이다. 악보가 완성된 후 오페라크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게 이 작품을 보냈고, 뛰어난 작품임을 한눈에 알아본 슈트라우스는 같은 해 12월 23일 바이마르궁정 오페라하우스에서 자신이 직접 지휘를 맡아 초연무대를 가졌다. 오페라크가 '동화 오페라'라고도 표현한 '헨젤과 그레텔'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 요즘도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무대로 자주 선보인다.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동신의 지휘와 해설, 계명대학교 출강, 오페라·뮤지컬 연출자로 활동 중인 유철우의 연출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메조소프라노 김수현, 성미진, 소프라노 신민원, 바리톤 이병웅이 출연하여, 오페라의 감동을 전한다. 헨젤 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김수현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A.R.A.M'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 뮤직 T.I.M.E.S 멤버로 활동중이다. 그레텔 역의 소프라노 신민원은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맨해튼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후 뉴욕타임스로

부터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소프라노'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엄마인 거트루트와 생강빵 마녀 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성미진은 신라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G. B. Viotti'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이태리음악연구회, 벨리씨미 회원으로, 아빠인 페터 역을 맡은 바리톤 이병웅은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Arena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울산시립합창단 단원, 동의예술종합콘서트바토리 외래교수로 있다.

일 시 | 2월 13일 금요일 오전 11: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균일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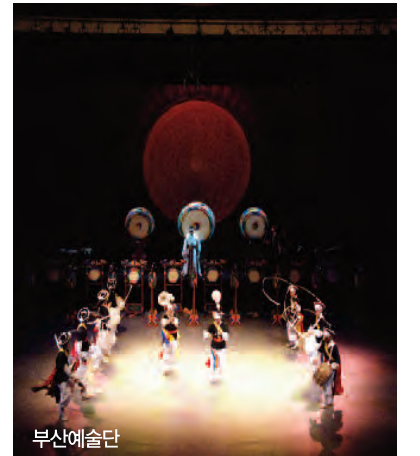
악장 채수만



소리꾼 박성희



김정원 무용단



부산예술단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월 18일,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무병장수와 풍요에 대한 소망을 담아 '설맞이 국악한마당'을 펼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채수만 악장의 집박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KBS 울산방송국 기상캐스터인 이지민의 사회로 김정원 무용단, 부산예술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가 춤과 노래가 있는 흥겨운 무대로 올미년의 희망찬 기운을 함께 전해준다.

첫 무대는 관악합주 '함녕지곡(咸寧之曲)'으로 연다. '편안함이 두루 미친다'라는 뜻의 '함녕(咸寧)'에서 부처진 함녕지곡은 '관악영상회상' 8곡 중 다섯 번째 곡인 삼현도드리를 연주하거나 삼현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을 연주할 때 통칭되는 곡이다. 피리가 주선율을 이끄는 관악협주곡으로, 주로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된다. 이어지는 곡은 현악합주곡인 '수요남극(壽耀南極)'. 군례악의 대취타를 관현합주로 편곡한 곡을 '취타'라 하고, 취타를 다시 관악합주로 연주한 곡은 '만파정식', 현악합주로 연주한 곡은 '수요남극'이라 불린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표 소리꾼 박성희가 2015년 새해를 맞아 밝고 흥겨운 기운을 담아 들려주는 판소리 무대에 이어서는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과 독창적인 해석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 '민속음악의 꽃' 이라고도 불리는 산조 합주를 들려준다. 산조(散調)는 19세기 말에 완성된 기악독주곡으로, 오늘날에는 가락을 연주하는 거의 모든 악기가 산조 가락을 전승하고 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합주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제4회 전국전통예술 일인일기 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하고 춤소리 예술단 대표,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이수자, 한얼정악 창무극단 예술감독, 극단 에저또 안무감독으로 있는 춤꾼 김정원과 그

가 이끄는 김정원 무용단 단원 남선주, 김지선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를 선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된 태평무는 섬세한 발놀림과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춤사위가 특징이다.

설맞이 국악한마당의 대미를 장식할 무대는 부산예술단이 선보이는 '판굿'. 판굿은 동네의 경비를 목적으로 돈이나 곡식을 얻기 위해 풍악을 연주했던 걸림패와 전국을 떠돌며 노래와 춤, 풍물, 재주 등을 연희했던 남사당패가 펼치던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예술단 김상현, 김민상, 정성훈, 김태현, 정은진, 조한민, 황진삼, 박성규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살려 완성도 높은 춤과 기예로 신명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일 시 | 2월 18일 수요일 오후 5: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1~2

3D 문화유산답사전 아름다운 우리 국보



3D 문화유산답사전

국내 최초로 '월출산 정상에서 강원도 산골까지' 3D로 만나는 우리 문화예술의 정점-국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감각의 문화예술 전시회 '3D 문화유산 답사전-아름다운 우리국보' 전시회가 3월 1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휴엔마커스 대표이자 한남대학교 예술문화학과 겸임교수인 이진우 박사(문화학)와 답사팀이 3년여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보들을 3D 촬영 기술을 적용하여 기록한 아름다운 우리 국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3D 문화유산답사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획된 전시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의 국보 중 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국보, 직접 가보지 않으면 볼 수 없거나 갔더라도 국보인지 모르고 지나쳤던 중요 국보들, 또는 공개하지 않아 볼 수 없었던 전국 8도에 있는 수많은 국보들을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3D로 생생하게 담아내어 한자리에 모아놓은 '3D문화유산 답사전-아름다운 우리국보'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현실감 있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복합(전시+교육+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전체 전시는 직역별 섹션, 테마 섹션, 분류별 섹션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 전국에 분포된 국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람은 입장과 동시에 3D 입체 안경을 쓰고 400여점의 3D 이미지들을 통해 직접 보는 것 이상의 사실감을 느낄 수 있으며, 국보들을 성격별, 특성별, 연대별 분류하여 교육적으로도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이진우 박사(문화학)와 답사팀의 여정과 함께 하다 보면 전국에 흩어진 우리 국보와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실재(實在)감 있게 느낄 수 있다.



|전시구성|

지역별 섹션

-전국에 분포한 국보를 8개 도별로 관람

테마섹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국보는 무엇일까, 가장 큰 국보는 무엇일까 등과 같은 다양한 테마로 국보를 비교감상

분류별섹션

- 탐파, 군중건축, 회화, 고분 금속 등 다양한 분류로 구성된 국보지도로 취향에 따라 감상

일 시 | 1월 4일~3월 1일 10:30 ~ 20:00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 학생 9천원

미취학아동/장애인/경로 7천원(단체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현장 카드제시시 20%할인)

문 의 | 휴엔마커스 070-7617-4004, 607-6230

Preview

다양한 기획전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미술관



매회 다양한 주제와 테마가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이 2월에도 다양한 기획전으로 관람객과 만나고 있다.

2월 22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실에서는 '부산의 발견 2014_손끝의 예술:물질의 변형'전이 열린다. '부산의 발견'전은 지난 2008년부터 2년마다 가져온 전시로, 부산지역 화단을 지탱해온 중견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통해 부산미술의 역사와 발전방향을 조망해보고 있다. 4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작가 김수길(한국화), 김응기(서양화), 김정혜(조각), 박수철(공예).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등 각 장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들의 작품을 통해 각 장르별 특성을 소개하며 더 나아가 예술의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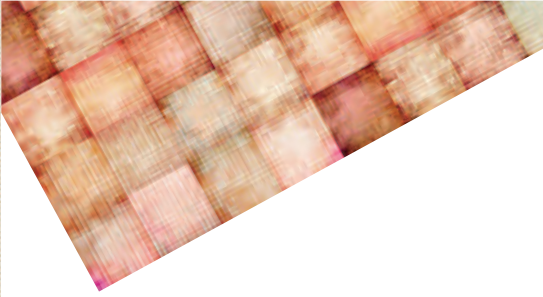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의 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는 '어쩌다 꾸 꿈'전은 2월 8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 H전시실, 소전시실 1실, 로비에서 펼쳐진다. 작가 김다영, 김춘자, 박성진, 박수경, 신대준, 이도현, 호상근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어린 시절의 기억, 동화적 상상, 일상과 꿈의 기록, 미래에 대한 바람, 현실에 대한 일탈 등 꿈에 대한 다양한 면을 제시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사람들이 꾸고 상상하고 희망하는 꿈들에 대해 펼쳐보인다.

부산 근대미술 형성기에 활동한 작고작가들을 연속적으로 조명해보는 '부산의 작고작가'전은 2월 22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10번째, 11번째 주인공은故오영재, 故조동벽 작가로, 그들의 초기 작품부터 말년 작품까지 작업 전개 과정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 용두산갤러리에서는 패턴화된 차가운 이미지의 추상회화를 감상할 수 있는 '패턴으로의 귀환'전이 2월 22일까지 펼쳐진다. 김홍석, 김봉태, 이성재, 김원백, 박춘재, 조철수, 김문수, 이승조 등 부산 출신이거나 연고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변희천, 강진식, 김용익 등과 함께 해외작가인 찰스 아놀드(미국), 바자렐리(헝가리)의 작품 14점이 전시된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art.busan.go.kr)



금관의 Guru들!

작곡가 하순봉

동양과 서양음악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금관의 존재이다. 금관은 오케스트라에 압도적인 음량과 풍성한 양감을 더해준다. 클라이맥스에서는 금관이 없이 그 특유의 장엄미와 송고미를 표현할 수 없다. 2015년 1월 17일 새해 벽두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금관의 최고수들 Guru들을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베를린 필과 빈 필의 금관 수석들로 이루어진 금관5중주단이 바로 그들이었다. 사실 현악의 비루투오조들은 협주곡이나 실내악에서도 자주 볼 기회가 많지만 금관의 경우는 그 특성상 솔로나 앙상블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금관 앙상블을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베를린 필이나 빈 필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은 그 안에서 또 많은 앙상블들을 갖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베를린 필의 12명의 첼리스트이다. 이번 빈-베를린 브라스 콰텟은 그간 유럽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고 올해 2월 음반출시를 앞두고 일본과 한국 연주투어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바흐의 작은 푸가 사단조로 시작된 이 날의 주제는 댄스와 여행이었다. 독일에서부터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헝가리, 러시아, 아르헨티나까지 그리고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시대와 공간을 넘나드는 즐거운 음악들의 시간여행이었다. 특히 평소 자주 접하기 힘든 금관의 고급 레퍼토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재즈풍의 말콤 이놀드, 프랑스 고전모음곡의 우아함이 넘치는 프랜시스 풀랑, 러시아의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빅토르 에발트, 요한 슈트라우스와 당대에 같은 인기를 누렸던 왈츠의 요제프 라너, 파반느의 가브리엘 포레, 탱고의 피아졸라, 집시음악의 예노 후바이 등 다양한 음악들의 성찬이 펼쳐졌는데 특히 빅토르 에발트의 곡에서는 트럼본 대신에 브라스밴드에서 자주 쓰이는 유포니움이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날 곡 중에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베르너 피르히너의 <주머니에 망치를 넣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수작이었다. 트럼보니스트의 해설과 함께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두 시간 가량의 긴 연주가 지겨운 줄 모르고 흘러가 버렸다. 사실 금관은 현이나 목관과 달리 입술의 휴식이 필요한 악기이다. 어떤 악기도 쉬지 않는 이런 앙상블은 금관 주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을 펼쳐든 나의 일성은 “이렇게 많은 곡을 다?...”였다. 그러나 이날 감사하게도 이들은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성찬을 펼쳤다. 금관이 가지는 웅장하고 장엄함은 물론 현란하고 익살스러움까지 모든 것을 보여준 무대였다. 5인의 다른 색깔의 실들이 짜내는 완벽한 직조물이었다.

토요일 낮이어서 대극장이 꽉 차지 않은 서운함도 있었지만 이 즐거운 음악을 같이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아쉬움이 더 컸던 음악회였다. 새해 벽두에 펼쳐진 금관의 팡파레의 기상을 이어 받아서 올해는 나라와 개인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view

삶의 족쇄가 된 80년대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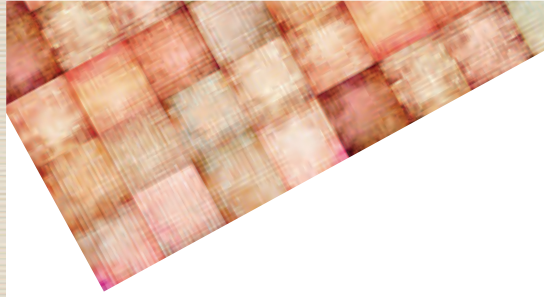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양지웅 작 연출, 청춘나비 소극장, 2014.12.19 ~2015.1.12)은 극단 미지 씨어터의 고정 레퍼토리이며 대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의 경연 섹션인 ‘젊은 연출가전’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바가 있고, 서울의 게릴라극장 공연에서도 부산지역 연극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어느 특정 인물보다는 10여 명의 역할 인물들 모두가 주인공이고, 개별적 인간의 미시적인 삶보다는 공동체적 인간 군상의 거시적 풍경을 담론화하고 있다.

80년대 초 광주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무렵을 시대적 배경으로 ‘길골’ 동네의 절망적 풍경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우울하고 침체된 모습이 아니라 희화적이고 밝은 페이스소스의 파노라마적인 풍경화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부랑적인 삶을 사는 ‘꼴통’과 ‘다정’이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출연 인물들은 이들 두 사람을 중심으로 윤회적인 플롯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들 모두는 시대적인 권력의 풍경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족 공동체의 꿈이 국가권력의 횡포에 갇혀 움썽 달짝 못하는 옥이네 식구들, 시대의 우울한 기운을 음악에의 열정으로 달래는 두 청년, 그림처럼 시처럼 이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아픔을 술과 부랑적 일탈로 달래는 꼴통과 다정 등 이 연극의 공간적 배경인 ‘길골’ 마을은 당시 한국사회의 축소판에 가깝다. 이 연극의 모미는 극의 톤(tone)에 있는데 칙칙하고 음습한 풍경이 아니라, 시대적 절망을 희화적 템포와 리듬으로 원경화시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부랑적 삶의 원인 규명에 대한 모호성

이번 공연에서는 이전의 공연보다 출연진이 대폭 바뀌어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꼴통 역의 김륜호와 다정 역의 임화선은 연기적 호흡과 순발력이 한 치의 틈도 보여줄이 없이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옥이 엄마의 이정비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연기 스타일을 뒤엎는 파격적 일탈을 시도하고, 꼴통 엄마 역의 송민정 역시 관습적인 자신의 연기 스타일을 넘어서고 있으며, 몇몇 역을 소화해 내는 이상우의 연기는 능청스러운 소박함이 넘치고 있다. 비좁은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는 연기 동선의 역동성과 무대 전환의 기능적 순발력은 아주 뛰어나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 꼴통과 다정의 부랑적 삶은 분명 시대와의 불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들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러한 모호함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리얼리티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시대적 암울함과 비정함이 풍경으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삶의 페이스소스가 묵직한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배우들의 폭발적 에너지를 질서 정연하게 무대 위에 배열하고 있는 양지웅 연출의 미적 감각은 놀랍다.



시대와의 불화를 시적 풍경으로 담아내다

극단 미지 씨어터의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연극평론가 김문홍



프로그램
가이드

3D문화유산답사전
월출산 정상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아름다운 우리 국보

일 시 | 1월 4일(일)~3월 1일(일) 관람시간 10:30
~ 20:00(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대전사실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 학생 9천원 · 미취학아동/
장애인/경로 7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현장카드 제시시 20% 할인)
문 의 | 휴앤마커스 070-7617-4004,
607-6230

직접 찾아가기에는 너무 먼 우리나라의 국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3D 문화유산 답사전.
국내 최초로 기획된 3D 문화유산 답사전은 전국 8
도에 있는 수많은 국보들을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3D로 생생하게 담아낸 전시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현실감있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복
합(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이다.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10주년 기념
Favorite & Revisited
가족음악회

일 시 | 2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국제음악제 740-5833

세계적인 스타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
유가 묻어나는 명 연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온
부산국제음악제 2015년 축제 음악회 마지막 무대
‘가족음악회’.
아시아 최고의 클래식 음악축제를 지향하는 부산국
제음악제(예술감독/백혜선)는 국내 유일의 최장수
민간주도형 국제음악제로 그동안 실내악의 짜릿한
요미와 감동을 주는 명품 음악축제로 호평 받아
왔다.
깊고 그윽한 멜림, 우아하고 진솔한 첼리스트로 사
랑 받고 있는 첼리스트 정명화를 비롯해 한국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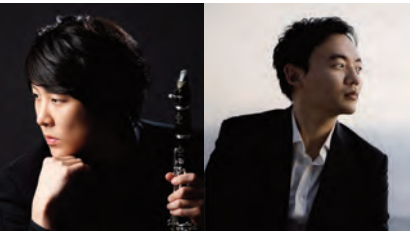
3D 입체 안경을 쓰고 400여 점의 3D 이미지들을
통해 직접 보는 이번 전시는 국보들을 성격별, 특성
별, 연대별로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전시구성|
지역별색선-전국에 분포한 국보를 8개 도별로 관람
테마색선-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국보는 무엇일까,
가장 큰 국보는 무엇일까 등과 같은 다양한
테마로 국보를 비교 감상
분류별색선-탑파, 궁중건축, 회화, 고분 금속 등
다양한 분류로 구성된 국보지도로 취향에
따라 감상

박현정 클래스 음악회

일 시 | 2월 1일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현정 010-3861-8494

어린 유치부 초급부터 전공생, 유학을 준비하는 대
학원생 등 박현정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클래스 음악
회.
동요와 듀엣으로 연주하는 4 Hands 곡, 소나티네,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 다양한 곡들과 성악, 중
창, 합창 공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제자들이 가족
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

표하는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 김남윤, 서울대교
수로 재직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주희성, 서울시립
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주자를 역임한 영남대 교수
채재일,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경희, 세계적
인 마에스트로故 로린 마젤이 생전에 직접 발탁한
차세대 피아니스트 윤홍천,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70여 명의 바이올리
니스트로 구성된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음악감독/김
남윤)가 감미로운 실내악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소프라노,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바위
위의 목동’
R.슈트라우스/첼로소나타 올림바단조 작품 6
•연주/정명화(첼리스트), 김남윤(바이올리니스트),
주희성(피아니스트), 채재일(클라리네티스
트), 김경희(소프라노), 윤홍천(피아니스트),
김남윤과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새봄을 여는 4인 음악회
To Voice to Klavier

일 시 | 2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오세민 010-2330-0994



독일, 미국, 이탈리아에서
유학 후 전문 연주가로, 현
직 대학강사로 활동 중인
바리톤 오세민, 피아니스
트 박정난, 임지영, 베이
스 최현욱이 들려주는 새
봄을 여는 4인 음악회 ‘To
Voice to Klavier’.
봄에 대한 소망을 주제로
희망적 영감을 줄 수 있는
브람스, 라벨, 슈만 등의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과
소통한다.
|프로그램|
슈만/동방의 그림 1,2,4
라벨/돈키호테의 노래
이베르/돈키호테의 노래 등 수곡
•출연/바리톤 오세민, 피아니스트 박정난, 베이스
최현욱, 피아니스트 임지영

부산시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광역시 남구청 607-4067

부산광역시 남구를 대표하는 어린이문화사절단 부
산시남구소년소녀합창단의 제6회 정기연주회.
2009년 창단된 부산시남구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
안 이기대달맞이축제 등 축하공연과 부산시 청소년
합창제, 을숙도 소년소녀합창제 등 다양한 공연활
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존레빗/미사곡
정애련/꽃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라운드 더 월드/중국민요 모리화, 일본민요 우에
무이떼아루고, 인도네시아민요 할로반둥 등
•지휘/김주곤 •반주/이소진
•특별출연/나무사이(남구청 통가터 동호회)



부산시민 초청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사랑과 감사의 신년음악회
‘Together’

일 시 | 2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월드비전 862-9090

월드비전 후원자와 부산시민들을 위해 월드비전 선
명회합창단이 들려주는 사랑과 감사의 신년음악회
‘Together’.
1978년 영국 BBC 주최 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한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
는 이번 무대는 전반부에서는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이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로 만든 현대곡에 화려한 안
무와 한국악기가 어우러지는 ‘한국음악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선과 화음으로 사계절을 노래하는 ‘가곡의



무지카 비바 제22회 정기연주회
Happy 2015 with 왈츠

일 시 | 2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박경희 010-2888-0292

편안하고 친근한 실내음악단 무지카 비바가 들려주
는 ‘Happy 2015 with 왈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Happy 2015 with
왈츠’는 아름다운 왈츠 음악의 선율을 통해 2015년
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뜻깊은 연주회로 세계 30여
개 음악축제 총감독 및 지휘자를 역임한 서울콘서트
오케스트라 지휘자 노태철의 지휘, 국립발레단 수
석 무용수,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무용수를 지낸 대
한민국 최고의 발레리노 이원국이 이끄는 이원국발
레단과 국내외 연주를 통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흥겨운 무대를 열
어준다.
1998년 창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악



향기’를, 후반부에서는 부산의 대표 어린이합창단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행복한 합창 무대를 선사
한다.
|프로그램|
한국음악의 아름다움/한강수 타령(이현철 곡), 도라
지 판타지(이현철 곡)
가곡의 향기/봄아 오나라(이현철 곡), 그 해 여름밤
(이현철 곡)
어느 가을날의 만남(이현철 곡), 겨울은(이현철 곡)
이현철/다시 일어나요
신상우/축복하노라 등 수곡
•음악감독/김화철
•부지휘자/김수현
•반주/이미연
•특별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수석지휘자/전
상철, 반주자/이영욱, 안무지도자/노금
선), 신상우



Program
Guide >>

M+BRAIN 무용단 정기공연
실종

일 시 | 2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5천원 · 학생 3천원
문 의 | M+BRAIN 무용단 808-1177



2014년 1월 첫 번째 정기
공연 ‘Life Time’을 선보인
아이엠 댄스시어터가 ‘엠브
레인 댄스컴퍼니’로 단체명
을 변경하고 새롭게 마련하
는 2015 정기공연 무대.
창원대학교 무용학과를 졸
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중
인 임병우의 안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속해 살아가면
서 꿈과 가치를 상실 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담
은 창작작품을 선보인다. 임병우는 2013 세종대학교
무용공쿠르 지도자상, 공로상, 안무자상, 2014 창원
대학교 무용공쿠르 지도자상, 2014 부산예술고등학
교 무용공쿠르 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1막 소녀 꿈을 꾸다 2막 실종 3막 삶의 찬미
•안무/임병우
•출연/박선영, 임지훈, 노지혜, 안보은, 표종인, 김
지원, 최윤정, 문규리, 전성민, 이재운, 김지
원, 정지완, 강민서, 박가림, 정선우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0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센텀 글로벌오케스트라 010-4171-7610

2008년 10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창단된 센
텀 글로벌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6회 정기연주회.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공연, 특별연주 등
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공연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
고 있는 센텀 글로벌오케스트라는 청소년 시절 풍부한
예술적 경험으로 감성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왔다.
|프로그램|
Canon, The Sound of Music Selections
Hello Mozart, Butterfly
Let it go, Mamma Mia Collections
2014 Worldcup Medley 등 수곡
•지휘/김태훈(동덕대, 부경대 외래교수)



2015 겨울음악페스티벌

일 시 | 2월 8일, 15일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010-2802-2883

...
음악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연구, 음악 및 피아노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주,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가 들려주는 2015 겨울음악페스티벌.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는 2004년 창립 이래 매년 여름과 겨울 음악페스티벌을 통해 전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서 중심의 클래식 음악 감상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무대는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피아노 듀오 음악회를 선사한다.

|일정|

■8일 Four Hands for One Piano
프로그램

요한 스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이병우/드라마 황진이 중 '꽃날'
김광민/학교 가는 길
주결류/湘倫小雨四手聯彈(상문소우사수연탄)(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드볼작/신세계 교향곡 등 수록
•연주/최선영&황은빛, 고성옥&서민영, 강혜영&민소연, 권민주&조선희, 박선연&민소연, 이주영&강혜영, 소프라노 백선경

■15일 Four Hands for One Piano

프로그램

드볼작/신세계 교향곡
이지수(편곡)/Clementine Variation(드라마 '봄의 왈츠')
영화음악/A Winter Story (영화 '러브 레터'), Merry Christmas, Mr. Lawrence(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 The Medalion Calls(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He's A Pirate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요한 스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연주/강혜영&정슬기, 정슬기&박세정, 박선연&민소연, 최선영&황은빛, 이주영&강혜영, 소프라노 백선경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헨젤과 그레텔'

일 시 | 2월 13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을 위한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첫 무대로 마련되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헨젤과 그레텔'.
그림 형제의 동명의 동화를 바탕으로 엔겔베르트 훔퍼딩크가 1893년 작곡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처음에는 여동생 아델하이트의 부탁으로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 몇 곡을 작곡했으나, 아이들이 이 음악 연극을 보고 무척 좋아하자, 다시 손질하여 3막의



오페라로 만들어 그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지휘로 12월 23일 바이마르 궁정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도 매우 알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있어 초연되었던 시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세계에서 자주 공연되고 있다.
세트를 최소화하고 음악적인 요소를 살린 이번 무대는 이태리음악연구회, 뮤직T.I.M.E.S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메조 소프라노 김수현이 헨젤로, 뉴욕 타임즈로부터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소프라노라는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소프라노 신민원이 그레텔로, 이태리음악연구회, 벨리씨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메조 소프라노 성미진이 엄마 거트루트와 생강빵 마녀로, 울산시립합창단 단원 바리톤 이병웅이 헨젤과 그레텔의 아버지 페터로 출연한다.

- 지휘, 해설/이동진
- 연출/유철우
- 메조소프라노/김수현(헨젤), 성미진(엄마, 마녀)
- 소프라노/신민원(그레텔)
- 바리톤/이병웅(아빠)



부산시립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민요와 애창곡의 향연

일 시 | 2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2

...

우리민요와 세계의 민요, 팝,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마련하는 부산시립합창단 2015년 첫 연주회 '민요와 애창곡의 향연'.
예쁜 가사가 매력적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The Hawaiian Wedding Song', 영화 쉬리의 O.S.T로도 삽입되었던 'When I dream'과 우리가요로 시작하는 여성합창을 비롯해 남성합창으로 듣는 독일민요, 러시아민요, 미국민요, 혼성합창으로 듣는 우리민요 연곡 등으로 평소 합창을 접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친숙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여성합창(박창호 편곡)/The Hawaiian Wedding Song, When I dream, 너에게 난, 너에겐 난, 친구여
남성합창/소나무여(독일 민요), 망망 대 초원(러시아 민요), 철로공사(미국 민요)
혼성합창/아름다운 푸른 도나우강, 봄의 소리 왈츠
혼성합창/새야 새야(전경숙 편·작곡), 밀양 랩소디(조우현 편곡), 장선아리랑 등 수록
•지휘/오세종 •반주/이승윤, 이경미

TDC 자선 엔젤단 결식아동돕기
기금마련 자선음악회

일 시 | 2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성빈 010-4248-6828

...

결식아동들을 돕는 비영리민간단체 'TDC 자선 엔젤단'이 주최하는 결식 아동돕기 기금마련 자선음악회.
특별히 이번 공연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클래식 앙상블팀의 재능기부로 결식아동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펼친다.

|프로그램|

1부 Violin Solo/생상 교향시 '죽음의 무도' 작품 40, 드보르작 로망스 작품 11, 크라이슬러 프렐류드와 알레그로
2부 Ensemble/드보르작 아메리카 작품 96, 쇼스타코비치 왈츠 등 수록



Love Violin 제1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윤영 010-3873-8757

...

현악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러브 바이올린의 제11회 정기연주회.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연주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모임으로 출발, 현재는 첼로를 배우는 사람들과도 함께 교류하며 현악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확대되었다.
Love Violin은 1년동안 각자의 지도자에게 레슨을 받고 때로는 아마추어 연주단체나 교회 등에서 따로 연주하다 매년 2월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같이 앙상블을 이루어 함께 무대를 열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 한마당

일 시 | 2월 18일 수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무병장수와 풍요를 담아 마련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절기음악회 2015 '설맞이 국악 한마당'.
피리가 주선율을 이끄는 관악합주 향령지곡을 비롯해 흥겨운 판소리와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과 독창적인 해석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산조합주, 춤의 명인 한성준이 경기도 도당곡의 무속장단을 바탕으로 구성한 민속춤 '태평무',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 '판굿'으로 1년의 복을 기원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된 '태평무'는 특히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새터민 등을 초대, 흥겨운 국악 한



마당을 펼친다.

|프로그램|

관악합주/향령지곡
현악합주/수요남곡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산조합주
무용/태평무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 '판굿'
•집박/채수만(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사회/이지민(KBS한국방송 울산방송국 기상캐스터)
•협연/김정원, 남선주, 김지선(이상 태평무), 박성희(판소리), 송강수(고수), 부산예술단 김상현 단장, 김민상, 정성훈, 김태현, 정은진, 조한민, 황진삼, 박성규(판굿)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제2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모차르트

일 시 | 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신청 KNN홈페이지 www.knn.co.kr 선착순 마감)

문 의 | KNN 850-9344

...

수준 높은 관현악 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강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회 두 번째 무대.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 부산이 자랑하는 소프라노 김유섬과 바리톤 박대용, 열정과 테크닉을 겸비한 우아한 음색의 피아니스트 임수정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모차르트의 명곡을 엄선, 유쾌한 클래식의 향연을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유명 협연자 외 프랑스 방송 Cannal+에 클래식 뮤지션 신동,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 바이올린 신동으로 출연해 만 8세의 나이로 세상을 놀라게 한 바이올린 신동 고소현이 모차르트가 유년시절 사용하던 바이올린으로 국내 최초로 연주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41번 작품551 '주피터' 4악장
모차르트/오페라 '돈 조반니' 중 '우리 두 손을 맞잡고'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21번 작품467 2악장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작품216 1악장 등 수록
•예술감독/오충근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협연/김유섬(소프라노) 박대용(바리톤) 임수정(피아노)
•특별출연/고소현(바이올린, 음악신동)
•사회/정희정, 황범(KNN 아나운서)



김수현, 고소는 피아노연주회

일 시 | 2월 25일 수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참기획 010-4016-7477

...

음악신문사 주최 부산경남 콩쿠르 금상, 부산진구 청소년음악콩쿠르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예고 2년 김수현과 부산 중등예능실기 대회 은상, 마이스터 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가야고2년 고소은이 함께 하는 피아노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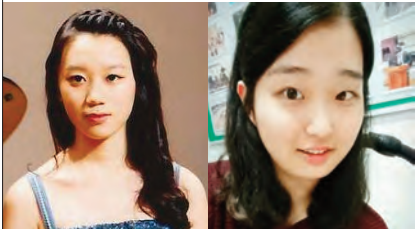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16번 사장조

슈만/알레그로

프로코피에프/피아노소나타 제6번

쇼팽/에튀드 작품10, 작품25 등 수곡



소프라노 디미트라 테오도슈와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일 시 | 2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

1999년 이탈리아 파르마와 볼로냐에서 아틸라 (Attila)의 오다벨라(Odabella)를 맡아 완벽한 해석으로 대성공을 거둔 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촉망되는 베르디-벨칸토소프라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리스 출신의 소프라노 디미트라 테오도슈와 함께 하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디미트라 테오도슈는 지금까지 세계의 유명 오페라 하우스에서 베르디, 벨리니, 도니제티를 중심으로 프리마돈나의 역할을 맡아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세계 유명 오페라무대를 압도해왔다. 디미트라 테오도슈는 2002년 1월 밀라노시는 베르



토브남성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토브남성합창단 646-4933

...

성악을 좋아하는 부산지역 남성들로 구성된 토브남성합창단의 제8회 정기연주회. 2004년 사회생활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노래하며 힐링하기 위해 창단된 토브남성합창단은 그동안 부산합창제,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내한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선한 마음으로 내 이웃과 동행하며 서로 협력하며 음악사랑을 실천해왔다. 토브는 좋은, 선함을 뜻하는 말이다.

[프로그램]

우리를 지키시네, 태산을 넘어

열차, 300용사 등 수곡

•지휘/김상호

•반주/정은희

•특별출연/김해율키즈스트라, 극동여성합창단, 동방현주



부산시 의사회합창단 '메디코러스' 창단연주회

일 시 | 2월 28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메디코러스 010-5526-0378

...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나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노래하는 의사 합창단 메디코러스 창단 연주회.

감성과 이성 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결성된 부산시 남성의사합창단으로 출발한 메디코러스는 2013년 여의사들을 영입해 남녀혼성 부산시 의사회 합창단 '메디코러스'로 재창단했다.

[프로그램]

눈, 내 영혼 바람되어, 동백섬,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거치는 들판의 푸르른 솔 임처럼, 백학, Va, pensiero 등 수곡

•지휘/이수정



내츄럴리 세븐 내한공연 in 부산

일 시 | 3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 S석 7만 7천원
A석 5만 5천원 · B석 3만 3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지니콘텐츠 02-568-8831

...

드럼, 기타, 베이스 등 밴드 악기 사운드를 인간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보컬 플레이어 그룹 내츄럴리 세븐(Naturally 7) 부산공연.

1999년 형제인 로저 토마스와 워렌 토마스가 '드럼을 갖고 싶다'는 열망으로 목소리로 드럼을 표현하는 방법을 창조해 내면서 다른 멤버들과 함께 목소리를 악기의 도구로 개발, 각자 자신의 소리의 독특한 면을 발견해 음악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내츄럴리 세븐은 파리 지하철에서 부른 'Feel it' 영상으로 일약 유튜브 스타로 떠올랐고 재즈 팝의 황태자 마이클 부블레 월드투어의 스페셜 오프닝 게스트로 출연,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불교TV 개국20주년 '나무아래 앉아서' 특집 공개방송 함께 걷는 세상, 아름다워라

일 시 | 3월 4일 수요일 오후 2: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전화신청, 접수)
문 의 | 불교TV 02-3270-3431

...

불교TV개국 20주년을 기념한 특집 공개방송 '함께 걷는 세상, 아름다워라'.

불교TV의 힐링뮤직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목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무대는 부산을 비롯 광주, 대구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축하, 감사, 행복, 동행을 주제로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토크콘서트를 펼친다.

'감사'를 주제로 펼쳐지는 부산 공연은 행복으로 가는 비밀열쇠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법문, 전문연주인의 연주가 어우러진다.

[프로그램]

벳노래, 천안삼거리,통영개타령

윌리엄텔 서곡, 오블리디 오블라다

싱어롱 '섬집아가', Stand by me 등 수곡

•사회/정목스님

•연주/솔리스트(아카펠라)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일 시 | 3월 2일-8일 월-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

...

현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담은 진지한 작품으로 2015년을 시작하는 부산시립극단이 의욕적으로 선보이는 2015년 첫 정기공연작 '다른 피'.

참혹한 과거로 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과 시대적 부조리를 무대에서 꺼내보려는 시도를 담은 영화 '해무'의 원작자 김민정이 발표한 '다른 피'는 지난해 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장 박장렬의 연출로 '연극집단 반'에서 초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다른 피'는 인기 만화가로 대중들의 큰 지지를 얻은 강준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위안부 사건에 대한 성찰, 가해자의 피와 피해자의 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서서히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다이나믹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린 작품으로 예고살인을 통하여 작품의 초반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대담한 기법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자 한 다양한 시도가 돋보이는 화제작이다.

•예술감독/문석봉

•작/김민정

•연출/박장렬(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 지회장)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공연 30분 전 입장,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2월 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 금관5중주

...

[프로그램]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작품 8 중 '겨울'

하이든/현악4중주 바장조 '세레나데' 작품3-5 중 제2악장

모리코네/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넬라 판타지아)

모차르트/타기 행진곡(피아노 소나타 작품 331 중 제3악장 터키풍으로)

바그너/생두 독수리의 깃발 아래(생두취 행진곡)

존 캔디/뉴욕, 뉴욕

에를 가너/인개 짙은

몬티/차르다시

루 폴락/댓츠 어 플렌티

비델트/캐리비안의 해적 : 블랙 펄의 저주 메들리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5번

현악4중주 String Quartet

Violin I, 권순지 Violin II, 배아름 Viola, 성정인 Cello, 김동미

•특별출연/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이에서, 이고운, 김초롱, 고은희

금관5중주 Brass Quintet

Trumpett, 김용건 TrumpettII, 박승훈 Horn, 안혜빈 Trombone, 박동혁 Tuba, 조상혁 SetDrum,

이희정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4중주

Program Guide >>

2월 14일

젊은소리 쟁이-맞이와 푸리II

...

민속악 중에서도 무속음악에 해당되는 음악들을 선별하고 재구성하여 준비한 무대. 각각의 무속음악들의 서로 다른 특징을 음악적으로 잘 살리기 위해 노력한 반면, 이 음악들이 각각 다르지만 산 사람, 죽은 사람 할 것 없이 결국 사람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며 그 속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을 생각하고 담아낸다.

[프로그램]

맞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진도씻김굿에 쓰이는 음악 중 일부를 엄선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호남 지방의 육자배기토리의 특성인 구성지고 애절하고 극적인 성음이 잘 나타나 있다.

울림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지정된 경기도당굿에 사용되는 음악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경기무속음악의 장단 중 가장 느린 장단에 속하는 푸살로 시작하여, 부정놀이, 올림채 · 모리, 발빠드레, 도살풀이, 겹마치기로 연주한다.

푸리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로 지정된 남해안별신굿에 사용되는 음악 중 일부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청신악으로 시작하여, 타악기 합주로 구성된 대너리(조너리 · 덩덕궁이 · 내림채), 가악과 구음이 함께 연주하는 선왕굿 동살풀이, 불림(염), 수부시나위, 제만수, 육십갑자, 맘자심의 순서로 재구성하여 연주한다.

•대표/박준식(타악, 소리)

•음악감독/문준모(대금)

•단원/정효선(거문고, 구름), 양정민(타악, 소리), 이호진(타악), 김정호(타악), 류권홍(무용), 최영훈(아쟁), 김희영(가야금)



젊은소리 쟁이

Program Guide >>

음악

Space UM ‘차가 있는 목요일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19일 공연없음)
스페이스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 포함, 5일 공연은
균일 2만원으로 사전예약 필수)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복 합 문 화 공 간 Space UM이 매주 목요일 저녁 마련하는 ‘차가 있는 음악회’ 2월 무대.

5일 맛있는 식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하우스 콘서트
해설과 함께하는 바리톤
강경원의 ‘겨울 나그네’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디플름, 엑자멘, 마이스터)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영재원, 부산예고,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BS마린캠퍼모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강경원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클래식아 오페라양상블, BS행복음악회 음악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강경원은 그동안 오페라 주역, 오라

토리오 독창, 드레스덴 필,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김천시립교향악단, 마산시립교향악단 등 협연무대, 해설이 있는 다이어트 오페라 기획, 제작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쾰러의 시에 곡을 붙인 슈베르트의 연가곡집으로, 깊이있는 선율과 반주로 독일가곡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겨울나그네’ 중 밤인사, 풍향계, 얼어붙은 눈물, 보리수, 홍수, 강 위에서, 도깨비불, 봄꿈, 우편마차, 백발의 머리, 폭풍우 몰아치는 아침, 미혹, 용기, 거리의 악사

• 피아노/장유진

12일 유한승 재즈트리오 ‘All about Jazz’

동아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있는 기타리스트 유한승과 재즈 연주자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주자 홍경섭, 세션연주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드럼주자 홍성율로 구성된 유한승 재즈트리오의 무대.



26일 폴리포니기타듀오 콘서트 ‘2월의 아름다운 하모니’

지난 2005년 기타리스트 서승완과 김경태로 결성된 폴리포니기타듀오의 무대. 다성음악을 뜻하는 ‘폴리포니(Polyphony)’는 독주로 표현하기 힘든 좀더 입체적인 음악적 표현을 추구하고자 붙인 이름으로,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국악, 남미무곡 등 음악의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지난 2011년에는 첫 음반 ‘Song of Polyphony’를 발매했으며, 2012년에는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제 프린지 무대에 참가해 ‘라이징 스타(Rising Star)’로 선정된바 있다.

[프로그램]

M. Linnemann/Juliette
피아졸라/리베르탱고, 아디오소 노니노
F. 골레앙/로망스, 캐논과 아리아
F. 소르/환타지
김영표/민주주제에 의한 3장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실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신명무대’ 2월 무대.

올해 ‘행복한 우리문화, 가까이 더 가까이, 행복으로 가꾸는 국악나무’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되는 토요신명무대는 올해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 노래와 악기, 민속춤, 궁중문화, 타악, 성악, 들놀이와 연희, 민속악, 창작춤, 국악관현악 등 주제별 10가지 색깔있는 공연을 만날 수 있다.

7일 함께 나누는 우리 소리 이야기(성악)

잡가, 판소리, 가야금병창, 경·서도민요, 남도·제주민요, 동부민요

14일 열린마당의 풍요(들놀이와 연희)

고성입춤, 문동춤, 좌수영여방놀이, 동래학춤, 춤. 판

21일 가락에 시름을 씻고 흥을 담아(민속악)
화심곡, 산조, 대풍류, 판소리와 고법, 시나위와 살풀이, 동해안무속사물

28일 화려한 새로운 몸짓(창작춤)

삼고무, 탈빛, 청음무, 부채춤, 운우고천

제26회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 626-8081,
010-3556-7308

...

지난 1996년 유능하고 열정있는 단원들로 창단된 후 그동안 25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공간과 위탁 초청연주, 시민을 위한 순회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의 26번째 정기연주회.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박종휘가 지휘하고 프랑스 Jean Wiener 국립음악원, 파리 Schola Cantorum 사



범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Concours international musique Leopold bellan 1위, Concours de Jean Wiener 1 위, Concours de flute ‘Roger bourdin’ 2위 등 국제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한 플루티스트 황미리,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성악 연주학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문화·예술·교육법인 올웨이코리아 오페라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상희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임공수/강 건너 불이 오듯이
칠레아/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리르’ 중 ‘저는 창조주의 미친한 종일 뿐입니다’

메르카단테/플루트협주곡 마단조 작품 57

그리고/홀베르크 모음곡

• 지휘/박종휘

• 협연/황미리(플루트), 박상희(소프라노)

2015 로랑 코르샤 내한콘서트 - 부산

일 시 | 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 의 | (주)백섹엔터테인먼트 02-6215-5665

...



정통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내한공연.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후 파가니니 국제음악콩쿠르 1위없는 2위, 자크 락보 국제음악콩쿠르 그랑프리, 지노프란체스카티 국제음악콩쿠르 프리미어 그랑프리를 차지하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로랑 코르샤는 프랑스 ‘르몽드’로부터 ‘자유와 존재감, 그리고 상상력을 모두 갖춘 매우 드문 연주자’, ‘르 피가로’부터 ‘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파리국립음악원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일등상으로 졸업한 피아니스트 변애영과 세계적인 아코디언리스트 엘로디 슬라드, 가수 효린이 협연한다.

2015년 마티네 콘서트 해금연주자 꽃별 ‘세계 속의 우리음악 시리즈 1’

일 시 |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저녁시간대 시간을 내기 어려운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해온 영화의전당 브런치 콘서트 ‘마티네 콘서트’ 2월 무대. ‘세계 속의 우리음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해금 연주자 꽃별의 진행으로 팝과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서양음악과의 이색적인 만남으로 세계 속의 우리음악을 만나본다.

국립국악중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해금주자 꽃별은 2001년 소리꾼 김용우의 일본 공연 당시 뮤지션으로 참가하면서 현지 음악 관계자의 눈에 띄어 일본에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2003년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한국의 민요와 정서를 담아낸 첫 음반 Small Flowers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발매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 2011년 3월까지 모두 다섯 장의 음반을 발표했다.

음악대륙 가이아 1집 발매 콘서트

일 시 | 2월 7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음악대륙 가이아 010-3273-8184

...



대중에게 생소한 ‘국악’을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무대를 가졌온 퓨전 국악실내악단 ‘음악대륙 가이아’가 1집 음반 발매를 기념 콘서트.

지난 2009년 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결성된 ‘음악대륙 가이아’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타 음악장르를 국악과 융합시킨 새로운 곡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공연기획에서부터 작곡, 연주까지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음악대륙 가이아는 이번 1집 음반 ‘GAIA’에서 음악대륙 가이아 단원들이 직접 작곡한 창작곡 10곡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서양 오케스트라와 밴드, 국악의 환상적인 조화와 화려한 조명, 다채로운 영상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CTS부산소년소녀합창단 제2회 가족음악예배 및 단원 향상음악회

일 시 | 2월 14일 토요일 오후 2: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장학재단 기금)

문 의 | CTS부산소년소녀합창단 784-9988

...

다양한 합동활동을 통해 음악적인 자질을 키우는 한편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화성하고 협동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해 지난 2012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CTS부산소년소녀합창단 제2회 가족음악예배 및 단원 향상음악회. CTS부산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CTS전국소년소녀합창단 여름음악캠프’, ‘CTS전국소년소녀합창대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글로벌 행복음악회

일 시 | 2월 22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공쿠르 장학재단 기금마련)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글로벌 행복음악회. 그동안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온 글로벌 행복음악회는 2015년에도 관객과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고전시대 실내악의 매력속으로

일 시 | 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_busan

...

복합문화공간 무지크바움이 마련하는 살롱음악회 2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이지은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비올리니스트 신지현,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성민경,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클라리네티스트 이원기가 고전시대 작곡가 모차르트, 하이든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클라리넷 오중주 K. 581
하이든/현악사중주 작품 76 제3번 '황제'



김성숙 피아노 독주회 이는 만큼 들리는 현대음악 이야기(3)

Now & Here : 지금 그리고 여기

일 시 | 2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성숙 010-5405-7483

...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 석사(피아노 연주 및 페даго지)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이 마련하는 '이는 만큼 들리는 현대음악 이야기' 세 번째 무대.

'이는 만큼 들리는 현대음악 이야기'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로, 부산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김성숙은 20세기 후반에 활동한 이상근, 김국진의 곡을 통해 한국적인 감각과 서양음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21세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곡가들 강영화, 오세일, 양성남, 정수란의 작품들을 통해서 지금 이시대 젊은 작곡가들의 음악적 감각과 작품성향들을 보여준다.

김남순 가얏고 독주회 길, The Road

일 시 | 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510-1739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장 및 예술감독으로 있는 김남순 가야금 독주회.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김남순은 그동안 21차례 독주회를 비롯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해외 연주회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려왔다.

그동안 강한 터치, 깊은 농현의 울림으로 가야금의 매력을 전해온 김남순은 이번 무대에서 '길'이라는 주제로 황병기 곡 '비단길'(12현곡), 박위철 곡 '길가의 민들레'(위촉곡, 25현곡), 김영재 곡 '황토길'(18현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김죽파 선생에게 직접 사사 받은 '김죽파류 산조'를 부산에서 오랜만에 연주한다.

•해금/ 최희연

•장구/신호수

연극

코미디극 러브 인 매직

일 시 | 4월 30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5:00

경성대 신나는 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경성대 신나는 극장 1588-5567

...

'허둥9단' 개그맨 허동환이 직접 연출, 출연하는 '러브 인 매직'은 기존 틀에서 벗어난 유니버스 형태의 빠른 진행으로 관객들과 함께 연기하는 생방향 공연이 특징이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두근거리는 사랑을 소재로, 포복절도 개그와 함께 환상적인 미술쇼가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소극장의, 소극장을 위한, 소극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개그 공연이다.



화끈 불타는 코미디극 타이밍

일 시 | 2014년 11월 7일(금)-2015년 2월 22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2/19일 공연없음)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어부산 1600-0316

...



20년지기 불청객 친구들이 벌이는 황당 소동극 '타이밍'. 부잣집에 장가를 간 데릴사위 정민은 자신에게 싸늘한 아내를 위해 리마인드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프로젝트 전 날 교교동창 강건과 오호가 정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몰래 정민의 집으로 쳐들어오면서 세 남자의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한다.

연극 '타이밍'은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처럼 마냥 즐거우면서도 그 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복합 버라이어티 코미디극으로, 획일화된 코미디극의 형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웃음 포인트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연극 내 사랑 은경씨

일 시 | 1월 7일(수)-3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2,900원, 주말 14,900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이 시대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정년퇴직한 후 벌어지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내 사랑 은경씨'. 평범한 부부에게 남편이 정년퇴직하면서 가정에 변화가 생긴다. 남은 인생 자신을 위해 고생한 아내에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남편, 60대 가정이 준비한 20대들이 하는 귀여운 이벤트에 크고 작은 오해와 다툼이 생긴다. 연극 '내 사랑 은경씨'는 30년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이 시대의 아버지가 갑자기 가정적인 아버지로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정감 넘치게 그려내면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뮤지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시즌 3

일 시 | 2014년 11월 7일(금)-2015년 4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12/24일 오후 4:00, 7:00, 12/25일 오후 1:00, 4: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아트레볼루션 010-9273-0711, cafe.daum.net/Art-Revolution

...



말 잘 듣고 이쁜 큰 딸에서 구박당어리로 전락한 초등학교 교사 노처녀 강희와 텔레파시 초능력자 인터넷 설비기사 힘찬의 따뜻한 환타지 로맨스극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이 시대에 남녀라면 결혼을 앞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들,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연출/박정우

•출연/손아영, 김유라, 채민수, 김범수, 정종욱, 김가령, 박다솔, 박준성

연극 연애의 목적

일 시 | 1월 8일(목)-3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2/19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연극 '육탐방고양이'를 쓴 박은혜 작가의 신작으로, 한 남자가 서로 다른 연애의 판타지와 현실 사이에서 연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극 '연애의 목적'. 핑퐁처럼 시종일관 주고받는 솔직 과감하고 불꽃튀는 대사들로 아슬아슬함과 코믹함 사이를 넘나들며 경쾌한 리듬으로 연애를 논한다. •작/박은혜 •연출/정우진

Program Guide >>

연극 라이어 그후 20년

일 시 | 2014년 11월 14일(금)-2015년 2월 15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주)KNN 664-7880

...



코미디 연극의 보충수표로 자리잡은 연극 '라이어' 시리즈 2탄 '라이어 그후 20년'. '라이어' 1탄의 주인공 존스미스의 20년 후를 그린 작품으로, 극중에서 주인공은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와와의 사이에서 딸 비키를, 바바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케빈을 둔 40대 가장 존에게 또 다시 찾아 온 정체불명의 위기, 자신의 아이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면서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다. 다시 시작되는 거짓말과 대반전이 관객들에게 설 새없는 웃음을 선사한다.

연극 애정빙자 사기극

일 시 | 1월 8일(목)-3월 29일(일) 오후 5:00, 8:00(2/19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을 키우며 조금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은 웰메이드 공감코미디 연극 '애정빙자 사기극'. 자신을 떠난 전 남자친구에게 상상초월 복수 대작전을 준비하는 여진과 그 복수의 인질이 된 태양을 주인공으로, '전생'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사랑과 인연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재치있고 코믹하게 풀어낸다. 연극 '애정빙자사기극'은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내 남자의 혈액형' 등을 연출한 연출가 정진국이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행복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커플에서부터 과거의 인연에 미련이 남은 사람들, 사랑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한 목마름 솔로 등 모두에게 유쾌하면서도 통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연극 발칙한 로맨스

일 시 | 1월 9일(금)~4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2/19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장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대한민국 예능계를 종횡무
진하는 예능의 신 김수로와
SNL코리아의 치명적 매력
남 김민교의 발칙한 상상력
으로 탄생한 색시 발랄 코믹
극 '발칙한 로맨스'.
15년 전 고교시절의 순수
한 첫사랑을 여전한 간직
하고 있는 수지와 봉필, 수
지와 이별 후, 봉필은 헐리
우드로 건너가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성공한다.
한편, 결혼한 수지는 평범한 유부녀로 지내던 사이
우연히 봉필의 소식을 접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봉필을 그리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잠시
머물게 된 봉필이 수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남을 갖기로 하는데...
연극 '발칙한 로맨스'는 흔한 듯한 소재에 발칙하면서
도 앙큼한 스토리를 더해 특별한 로맨스를 그려낸다.

울트라 코믹극 오아시스클럽 부산

일 시 | 1월 16일(금)~2월 28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
휴일 오후 2:00, 5:00(2/18일~20일, 월
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장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



여자이고픈 남자들의 요절
복통 코믹 버라이어티쇼
'오아시스클럽' 부산공연.
트랜스젠더인 마담킹이
15년간 운영중인 BAR
'오아시스클럽'은 불행한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외
로운 사람이 위로를 받는
정겨운 공간이다. 이곳에
여자가 되기 위해 엄마와
자신을 버린 아빠 마담킹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의 딸 하나가 찾아오면서 부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고, 어느날 보게된 오아시스클럽 무대의
쇼는 연예인을 꿈꾸는 하나에게 춤과 노래, 연기
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연극 '오아시스클럽'은 우리사회 소수자인 트랜
스젠더를 주인공으로, 어쩌면 다양한 형태의 소
수자일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웃음으로 코
믹하게 그려낸다.

뽕타지 어린이뮤지컬 꼬마마녀 아리와 마법빵

일 시 | 1월 10일(토)~3월 1일(일) 매주 토-일요
일 오전 11:00 조은극장 스탈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극단 조은사람들 245-0042
...



빵 내음이 솔솔~, 요리
기구를 활용한 다양한 퍼
포먼스와 친숙한 동요로
구성된 오감만족 어린이
뮤지컬 '꼬마마녀 아리와
마법빵'.
마법타운의 루이자씨와
셋별이가 운영하는 마법
빵집에 마법학교를 졸업
한 아리와 도깨비 방망이
로 마술을 펼치는 껌비가 찾아오고, 그들은 누가
마법빵을 잘 만드는지 서로 경쟁을 벌인다. 매번
아리와외 경쟁에서 패배한 껌비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친구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나쁜 마법사 모
른가의 꾀에 넘어가는데...
'꼬마마녀 아리와 마법빵'은 나쁜 마법에 걸린 마
법타운을 구하기 위한 아리와 친구들의 활약을 통
해 친구의 소중함을 그린 작품이다.

뮤지컬 철부지들

일 시 | 1월 13일(화)~3월 1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4:00(2/18일~20, 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장르버라이어티 판 759-7731
...



지난 1960년 브로드웨
이 무대에서 초연된 후
지금까지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관객과 만나고 있
는 뮤지컬 '철부지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상
을 뒤집은 뮤지컬 '철부
지'는 반대하면 더욱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
를 이용해 서로 원수인척
아이들을 이어주려는 두 아버지와 비극적 사랑에
빠진 줄 착각하는 마드와 루이자를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그린 작품이다.
단순하면서도 친근한 줄거리와 유명한 주제곡
'Try to remember'를 비롯한 14곡의 주옥같
은 뮤지컬 넘버가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원작/토 존슨 •작곡/하베이 슈미트
•출연/노홍우, 이경진, 허수명, 김기태, 배문수,
이재욱, 김지운, 김현주

문화판 '모이라' 창단공연 거기, 두루마음이 있다

일 시 | 2월 4일(수)~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프로듀서 정하늘 010-9038-6695
...



지난해 10월 창단된 공연
단체 문화판 '모이라' 창단
공연.
'모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이자,
'모여라'의 경상도 방언으
로, 운명처럼, 좋은 공연
을 지향하는 창작자들과
관객들이 날카로운 인식과
따뜻한 정서를 함께 나누
기 위해 창단됐다.
문화판 '모이라' 대표이자 경성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로 재직중인 김숙경이 연출한 '거기, 두루마음이 있
다'는 소박하고 정겨운 두루마음을 배경으로, 진지
하면서도 경쾌한 스토리와 서정적인 표현으로 감동
을 전해준다.
연기경력 40년에 빛나는 박찬영을 비롯 부산시립극
단 단원 정행심, 유쾌한 카리스마와 연기력이 돋보
이는 권철, 연극과 영화를 아우르는 진산미 등 부산
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연극 벌어곡

일 시 | 2월 13일 금요일 오후 8:00, 14일 토요일
오후 4: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

지역간의 교류 활성화와 관객들의 보다 다양한 공
연관람을 위해 마련해온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의
주인공인 극단 푸른연극마을(광주), 극단 놀자(대
전), 극단 한울림(대구), 극단 명태(전주), 공연예술
창작소 어니언킹(부산), 문화프로덕션 도모(춘천),
문화창작집단 공터_대(구미) 등 7곳의 지역 극단이
작품성 높은 창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연극인으로
서 목마름을 해소하고 관객과 함께 의미있는 소통
을 만들어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공동 창작극
'벌어곡'.
극단 푸른연극마을 대표인 오성완이 구성, 연출한 연
극 '벌어곡'은 작은 간이역의 높은 역장이 만나는 인
간군상을 통해 우리 이웃의 다양한 삶을 그려낸다.



영화

키즈무비 페스티벌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2015년 2월 22일
(일)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 의 | 플레이어부산 1600-0316
...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
을 위해 마련한 키즈무비
페스티벌.
세상 모든 게 신기하고 공
금한 것 투성이인 꼬마 꿀
벌 마야의 모험을 그린 애
니메이션 '마야와 외계 세
력에 맞서는 파워 레인저
의 활약을 그린 '극장판 파
워레인저 다이노포스VS
고버스터즈 공룡 대결전! ~안녕, 영원한 친구여~',
탄생 20주년을 맞은 20세기 최고의 추리만화 '명탐
정 코난'의 극장판 18번째 작품이자 국내 10번째 공
식 작품인 '명탐정 코난-이차원의 저격수' 등 세편의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자세한 영화 상영일정 및 프로그램은 전화나 인터
넷 카페(cafe.daum.net/playthebusan)로 문의

Program Guide >>

동물뮤지컬 정글로 간 백설공주

일 시 | 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



실력있는 조연사와 재주 많
은 동물들의 총 집합한,
SBS TV '동물농장' 출연
진이 선사하는 국내 최초
동물 퍼포먼스극 '정글로
간 백설공주'.
오늘도 어그업이 비둘기와
귀여운 왕관앵무새가 숲
속에 사는 백설공주를 찾
아오고, 숲 속 지킴이 원
숭이 '나나'와 살고 있는 백설공주는 동물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어느날 숲 속에 갇혀있
던 마녀가 풀려나면서 백설공주에게 위험이 닥치는
데... , 과연 동물친구들은 백설공주를 무사히 지켜
낼 수 있을까?
대경대학 동물조련이벤트과에서 제작한 '정글로 간
백설공주'는 동화 속 일곱 난쟁이 대신 마녀로부터
백설공주를 지키는 동물들의 활상악을 그린 작품으
로, 살아있는 동물들의 퍼포먼스에 공연 중간 펼쳐
지는 미술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콘서트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6-부산

일 시 | 1월 31일 토요일 오후 7:00, 2월 1일 일요
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 균일 7만 7천원
문 의 | (주)WSM 1566-5490
...



토크콘서트의 절대 강자,
소통의 아이콘 김제동이
마련하는 토크콘서트 '노브
레이크' 시즌 6번째 무대.
임담꾼 김제동이 만드는
재미와 감동의 특별한 무
대로, 2009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97회
관람으로, 매 시즌 사랑을
받으며 국내 유일의 정통 원맨 스탠드업 토크콘서트
로 자리매김해왔다.
듣는 이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언어의 마술사' 김
제동은 이번 무대에서 음악과 영상을 활용한 버라이
어티한 구성과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열린 소
통까지 여타의 공연과는 차별화된 기획과 콘텐츠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2014~2015 서태지밴드 전국 투어 라이어트 나이트(Quiet Night)-부산

일 시 | 2월 7일 토요일 오후 5:30
BEXCO 제1전시장
입장료 | 스탠딩석 14만 3천원
문 의 | 쇼21(주) 1588-1407

아트 가평클 첫 내한공연

일 시 | 2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15만 4천원, R석 13만 2천원
S석 12만 1천원, A석 9만 9천원
B석 8만 8천원
문 의 | (주)KBS비즈니스 620-7181
인터파크 1544-1555
...



전설적인 포크록 듀오 '사이
먼 앤 가평클'의 멤버 아트
가평클의 첫 내한공연.
볼후의 명곡이라 할 수 있
는 'Bridge over Trou-
bled Water' 'The Sound
Of Silence' 'Scarbor-
ough Fair' 등을 비롯해 솔
로앨범히트곡을 들려준다.

2015 김광석 다시부르기- 부산

일 시 | 2월 15일 일요일 오후 2:00, 6: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9만 9천원, R석 7만 7천원
S석 5만 5천원

문 의 |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www.goconcert.co.kr

...



지난 2009년故 김광석의 고향인 대구에서 시작해 지난해까지 매년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최해온 '김광석 다시부르기' 2015년 무대.

한 가수를 추모하는 단일 공연으로서는 세계 유례없는 최장기, 최대 규모로 대중음악 콘서트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김광석 다시부르기' 2015년 무대에서는 살아 생전 절친한 사이였던 박학기과 한동준을 비롯해 동물원, 자전거탄풍경, 유리상자, 장미여관, 슈퍼스타K6 우승자 박진언 등 선후배 뮤지션들이 참여해 스토리가 있는 무대를 통해 우리를 삶 속에 살아서 함께 호흡하는 김광석을 추억한다. 이 공연의 수익금과 출연가수들의 출연료는 김광석 추모사업회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송해 설날 빅쇼! 90수 기념 영원한 유랑청춘 송해

일 시 | 2월 21일 토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효도석 9만 9천, 장수석 8만 8천원
행복석 6만 6천원

문 의 | 요요기획 1800-2575

넥스트 Utd. 故신해철-민물장어의 꿈

일 시 | 2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6만 6천원

문 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언니네 이발관 신년 콘서트

일 시 | 2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 드림홀

입장료 | 균일 6만 6천원

문 의 | 블루보이 070-4334-3792

우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행스케치

일 시 | 1월 5일(월)-2월 9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2:0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1장좌 2만원(茶 포함)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피아니스트 정문정의 아는 만큼 들리는 음악이야기 2

일 시 | 1월 19일(월)-2월 9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1장좌 1만원(茶 포함)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루즈벨트대학교 석사, 드폴대학교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루즈벨트대학교 콘체르토 콩쿠르, 전미교수협의회(MTNA)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정문정의 아는 만큼 들리는 음악이야기 두 번째 강좌.

러시아 불쇼이쑈 & 차이나 서커스 합동대공연

일 시 |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7: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러시아 전통춤과 프랑스의 강강, 브라질의 샴바, 스페인의 훌라맹고 등 버라이어티한 쇼와 댄스, 중국기에 단의 기상천외한 묘기를 최대한 음향, 조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러시아 불쇼이쑈 & 차이나 서커스 합동대공연.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50회 시낭송 및 제11회 시낭송대회

일 시 | 2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관 문화사랑방

문 의 | 안태봉 017-552-0626

행사

영화의전당 아이스링크 ‘LOVE on ICE’

일 시 | 2014년 12월 13일(토)-2015년 2월 22일(일) 입장시간/오전 10시-오후 10시

영화의전당 두레리움 야외광장

입장료 | 일반 7천원, 초등학생 이하 5천원
(24개월 이상 입장)

문 의 | 필드레저산업 780-6136

...

매년 겨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영화의전당 아이스링크 ‘LOVE on ICE’. 영화의전당 아이스링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붕이 있는 야외 아이스링크장으로, 규모면에서도 부산에서는 보기 힘든 1800㎡크기로 넓은 공간에서 스피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2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클래식과 재즈 매니아를 위한 무지크바움 특색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2월 무대.

11부 프로그램

- 사이먼 래틀, 메나헨 프레슬러, 베를린 필 뉴이
어 이브 콘서트 2014
- 린 아리엘 트리오, 2005, 독일

12부 프로그램

- 웨인쇼터 퀼렛, 더 랭귀지 오브 더 언노운, 2014
- 안돌라 이브라힘, 유스 오케스트라, 1998 라이브
- 스팅, 케네디 센터 아너스 2014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전시

순간의 역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폴리처상 사진전

일 시 | 12월 5일(금)-2015년 2월 22일(일)

KNN 월석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중·고생 1만원, 초등·유아 8천원

문 의 | KNN 월석아트홀 1577-7600

...



인류의 양심을 깨우는 ‘언론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폴리처상 수상 사진전. 저명한 언론인 조지프 폴리처의 유산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1917년 만들어진 폴리처상은 언론, 문학, 음악 등 3개 부문으로 90년 명성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보도사진 부문 시상은 1942년 처음 시작되어 1968년 특종사진과 특집사진분야로 나뉘 오늘날에 이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942년부터 2014년까지 폴리처상 수상 사진 190여 점과 폴리처상 수상작가 맥스 데스포의 한국전쟁 사진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과일그림 5인전

일 시 | 1월 13일(화)-2월 8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 624 0933

...

사과, 포도, 석류, 딸기, 모과 등 과일을 소재로 한 극사실 작품 전시.
•참여작가/강민정, 김광한, 김대연, 송은경, 정창기

김범수 개인전 ‘움직이는 얼굴’

일 시 | 1월 19일(월)-2월 7(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다큐멘터리 스타일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2015년 2월 25일(수)

고은사진미술관,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기념 전시 부산박물관 소장유물 100選, 珍寶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2015년 2월 15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보살입상’(국보 제200호), 신라 비로자나불 좌상의 제작 연대를 8세기로 끌어 올린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남석사리호’(국보 제233호), 젊은 시절 강세황의 필적이 돋보이는 ‘칠태부인경수연도’(보물 제1809호) 등 국보와 보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등 약 1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BMW PHOTO SPACE 개관전 이정록_See the Uns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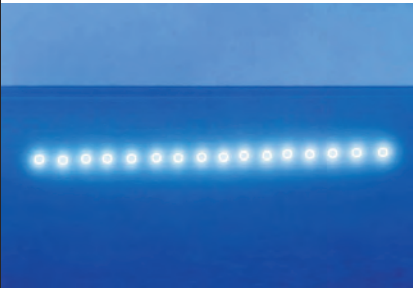
일 시 | 1월 23일(금)-3월 31일(화)

BMW PHOTO SPACE

문 의 | BMW PHOTO SPACE 744-3924,
747-8100

...

풍경 위에 작가의 상상력으로 써내려간 원형의 메시지를 통해 풍경의 함의를 짚어보는 사진작가 이정록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겨울방학 특집 양재영 개인전

일 시 | 1월 28일(수)-2월 26일(목)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Program Guide >>

부산의 발견 2014

손끝의 예술:물질의 변형

일 시 | 2014년 12월 12일(금)-2015년 2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참여작가/김수길, 김응기, 김정혜, 박수철

부산의 작고작가전

일 시 | 2014년 12월 12일(금)-2015년 2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Asia Independent Art : 개인으로 부터 정치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2015년 2월 28(일)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문 의 | 오픈스페이스 배 055-320-1230

...

한국,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등 모두 아시아 6개국 미술 공간이 참여하는 AIA(Asia Independent Arts).

작가들의 수다 ‘인형조형展’

일 시 | 2월 9일(월)-2월 29(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각 장르의 젊은 작가들이 인형이란 주제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작업한 인형 조형전.

8인 SPECTRUM 전

일 시 | 2월 11일(수)-3월 8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 624-0933

...

•참여작가/김명숙, 김세은, 김종숙, 김희정, 서유정, 원애경, 이희진, 채연희





New Album... GM뮤직 제공



❖ 주빈 메타와 빈필하모닉의 2015 빈 신년음악회

▶매년 새해, 전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최고의 클래식 프로그램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인도 출신 지휘자 주빈 메타가 2007년에 이어 2015년 신년음악회의 지휘자로 다시 돌아왔다.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음악 행사 중 하나이다. 7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는 세계 유명 지휘자들이 지휘를 맡아 왔으며, 전 세계 70여 개국의 TV와 라디오에서 방영되며 수 백만 명의 시청자가 감상한다. 전세계에서 주목 받는 명 지휘자 주빈 메타는 올해로 다섯번째(1990, 1995, 1998, 2007년) 빈 신년음악회 지휘를 맡으면서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빌리 보스코프스키, 클레멘스 크라우스, 로린 마젤 등 단 세사람만이 그보다 많이 지휘했다. 다섯 번 무대에 서는 동안 그는 78곡을 지휘했고, 두번 연주한 곡은 다섯 곡에 불과하다. 주빈 메타는 비엔나에서 음악 공부를 했으며, 사라 장, 백건우, 정명화 등 우리나라 아티스트들과도 여러차례 협연한 한국과도 친분이 두터운 지휘자이다. 이번 빈 신년음악회에서 주빈 메타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 2세, 프란츠 슈베트의 전통성있는 폴카와 왈츠 작품들을 선보이는 한편 최초로 선보이는 5곡의 초연작품들을 연주했다.



❖ 아바도 추모콘서트 [한글자막]

(말러: 교향곡 3번 피날레,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1악장 외)
이사벨레 파우스트(vn)/ 브루노 간츠(narr)/ 안드리스 넬손스(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아바도의 죽음을 기리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추모콘서트
우리 시대의 진정한 거장이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지난 2014년 1월 20일 81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그해 4월 6일에 추모 연주회가 펼쳐졌고, 그 실황이 Accentus를 통해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없이 연주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1악장은 거장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가장 극적인 이미지로 우리 앞에 드러내며, 이후 아바도가 가장 좋아했던 시인 뢰너의 '빵과 포도주'가 영화 '물락'에서 히틀러를 열연했던 스위스의 배우 브루노 간츠의 감동적인 낭송으로 이어졌다. 이후의 콘서트는 안드리스 넬손스의 지휘로 전개되는데, 이사벨레 파우스트가 협연한 베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어느 천사를 위하여'와 말러 교향곡 3번의 마지막 악장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이 연주회장의 분위기를 더 한층 숙연하게 만들었다. 루체른에서의 거장의 마지막 모습인 베토벤 교향곡 3번의 일부와 볼로냐와 밀라노에서 있었던 추모식 현상의 화면들, 그리고 고인의 추억을 전하는 지인들의 인터뷰가 연주회 실황 사이에 적절히 삽입되었다.



❖ 마린스키 II 개관 기념 갈라 콘서트

네트렙코, 도밍고, 보로디나, 압드라자코프, 파페, 페트렌코, 카바코스, 바슈메트, MATCHÉ프 외 발레리 게르기에프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게르기에프의 손끝을 통해 연출된 러시아 오페라와 발레의 정수
러시아의 오페라와 발레를 대표하는 마린스키 극장은 최신 시설의 대형 극장인 마린스키 II를 완공하였다. 2013년 5월 2일에 있었던 개관 기념 갈라 콘서트가 이번 영상물에 생생하게 수록되었다. 거장 게르기에프의 카리스마와 러시아가 자랑하는 젊은 천재 연출가 바실리 바르카토프의 감각이 어우러진 이번 갈라콘서트는 이 극장의 빼어난 역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데니스 마추에프의 초절기교가 빛나는 '피가로의 카바티나', 바슈메트의 비올라와 에카테리나 콘다우로바의 춤이 어우러진 '빈사의 백조', 니진스키의 오리지널 안무와 샤샤 발츠의 최신 안무를 병행한 '봄의 제전'의 일부, 올라 보로디나의 풍부한 성량이 빛나는 '데릴라의 아리아', 네트렙코의 열정이 빛나는 '맥베스 부인의 광란의 장면', 네트렙코를 두고 벌어지는 정상급 베이스 네 사람의 코믹한 경쟁으로 연출된 '이제 우리 손을 잡고', 마린스키 단원으로 활약 중인 발레리노 김기민의 빼어난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에튀드' 등 화려하고도 풍성한 음악의 성찬이 2시간 동안 이어진다.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지상의 방 한 칸

김문홍 지음 / 도서출판 해성 / 312p / 1만 5천 원
희곡작가 김문홍 씨가 다섯 번째 희곡집을 발간했다. 문학성, 작가의 성찰,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어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희곡들이다. 책에 수록된 6개의 희곡작품 중 4개는 이미 공연됐다. '방외지사 이옥'은 제28회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연기상, 신인 여자연기상, 무대예술상을 받았다. 조선 후기 정조의 문체반정에 맞서 끝까지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체를 바꾸지 않았던 문인 이옥의 파란만장한 삶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졌다. 거대한 정치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지식인을 표현한 작품이다. 표제작 '지상의 방 한 칸'은 2010년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작이다. 현실에 대한 절망과 소통 부재라는 이중고통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 '그 분이 오신다'는 제30회 부산연극제 공연작품으로 김상필이라는 인물이 세한도에 집착하는 이유를 서서히 밝혀간다. '그분, 조선을 깨우다'는 창작뮤지컬로 2013년 광명연극협회 합동공연작이다. 청나라에 불모로 끌려갔지만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삶을 살다 간 새로운 조선의 여인상을 제시했다. 미 공연작 '속절없이 봄날을 간다'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도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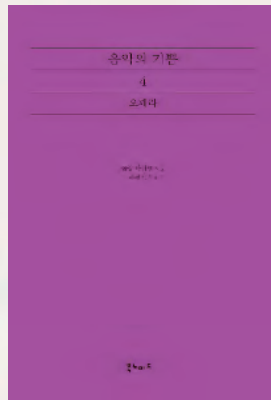


❖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이재훈 지음 / 사우 / 332p / 1만 4천 원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 주인공 앤디는 교도소 방송실의 문을 잠그고 LP판 한 장을 골라 턴테이블 위에 올렸다. 간수들은 앤디에게 음악을 끄고 나오라고 옥박지르지만, 앤디는 오히려 소리를 한껏 올려 버린다. 그러자 교도소 운동장에 내걸린 스피커에서 소프라노의 이중창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순간, 운동장에 있던 죄수들이 하나 둘씩 허리를 펴든다. 음악을 듣는 그들의 얼굴 위로 어떤 '감정'들이 퍼져나간다. 늘 교도소장의 훈시가 흘러나오던 스피커에서 갑자기 흘러나온 그 음악은 죄수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유를 향한 그리움을 일깨워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쇼생크 탈출'에서 감동적인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이다. 이때 흘러나온 음악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의 아리아 '산들바람의 노래'이다. 클래식 칼럼니스트인 이재훈 씨가 음악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을 책으로 소개한다. 저자는 현대인의 삶과 음악, 음악가의 인생을 버무려 독자를 편안하게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렵고 지루하다는 클래식을 누구라도 즐기게 될 수 있다. 저자가 추천하는 모든 음악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첨부했다.

❖ 음악의 기쁨 4-오페라

롤랑 마뉴엘 지음, 이세진 옮김 / 북노마드 / 394p / 1만 6천 800원
1947년 출간된 클래식 음악의 고전 <음악의 기쁨 Plaisir de la Musique>이 완역되었다. <음악의 기쁨>은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인 롤랑 마뉴엘과 피아니스트 나디아 타그린의 매주 일요일 라디오 프랑스에서 음악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옮긴 책이다. <음악의 기쁨> 제4권은 오페라의 역사를 살펴본다. 오페라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트로푸스, 전례극 등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몬테베르디, 캄파라, 라모, 글루크, 모차르트, 로시니, 베를리오즈, 베르디, 무소르그스키 등 음악가들의 작품을 통해 오페라의 발전 과정을 되짚는다. 단순히 멜로디에 말을 붙인 게 아니라 담화를 노래로 풀어내는 극(劇)인 오페라의 등장은 일종의 '개혁'이나 '혁신'과 같았다. 고대 그리스의 이상, 즉 '노래하면서 말한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음악 예술의 '쇄신'이었던 것. 그러나 오페라가 융성했던 때에 비해 지금은 '오페라는 죽었다' '가극은 죽어간다'는 말이 들릴 만큼 오페라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과연 오페라의 퇴락은 이토록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어두워만 보이는 가극의 운명에 희망은 있는가. 제4권의 말미에서 롤랑 마뉴엘과 나디아 타그린은 새로운 오페라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Special movie...



❖ 프렌치 클래식 French Classics

1월 23일(금)~2월 8일(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쥘리앙 뒤비비에, 장 르누아르, 마르셀 카르네, 로베르 브레송 등 영화사에 아로새겨진 거장 10인의 작품을 통해 프랑스 고전 걸작 15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상영전 '프렌치 클래식'이 2월 8일까지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펼쳐진다.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의 두 거장 쥘리앙 뒤비비에와 마르셀 카르네는 프랑스적인 우울과 낭만 속에서 특유의 영화적 리얼리티를 만들어냈는데, 뒤비비에가 〈망향〉에서 묘사한 카스바의 뒷골목과 카르네의 〈안개 낀 부두〉에서 르 아브르에 내려앉은 안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장 르누아르는 〈거대한 환상〉에서 특유의 휴머니즘적 시선으로 당대 유럽을 들여다보았으며, 〈프렌치 캉캉〉에서는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색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로베르 브레송은 장편데뷔작 〈죄지은 천사들〉에서부터 고유의 영화 미학과 더불어 끊임없이 속죄와 구원에 대해 성찰했던 그의 작품세계를 펼쳐 보인다. 이 외에도 경이로운 영화적 실험을 선보인 장 비고의 〈품행제〉 등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15편의 고전 걸작들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문의는 영화의전당 780-6080, www.dureraum.org.



❖ 부산시립미술관 겨울방학 무료영화상영

2월 21일(토)~2월 28일(토) 부산시립미술관 강당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미술관 관람객들에게 전시 관람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겨울방학 무료영화상영'을 마련한다. 지난 1월 31일까지 열린 첫 번째 상영회에 이어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시립미술관 강당에서 가족영화 및 어린이영화, 미술관련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한다.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는 귀여운 슈퍼악당 미니언의 활약을 그린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2'(1월 28일), 신과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영웅들의 판타지 어드벤처 '퍼시픽스과 괴물의 바다'(1월 31일), 실패한 작곡가와 꿈을 잃은 아이들의 희망 합창곡 '코러스'(2월 21일), 2013년 타임지가 뽑은 최고의 영화 '그래비티'(2월 26일), 전 세계적으로 1억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스크린에 옮긴 '페이머스 파이브-키린섬의 비밀'(2월 28일) 등. 영화 상영에 이어 '예술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 1-사람보다 사람다운 것', '예술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 2-그림이 태어난 날', '예술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 3-설득의 기술', '예술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 4-옛날 옛적에', '예술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 5-죽음과 사후의 세계' 등 미술 다큐멘터리가 잇따라 상영된다.

문의는 740-4264, art.busan.go.kr.



❖ 국도예술관 2월 상영작

미스터 터너, 토미 웅거러 스토리, 달사람

2월 국도예술관에서는 인상주의의 시작이자 풍경화의 거장 윌리엄 터너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스터 터너'와 한때 미국에서 가장 이름난 동화작가였던 천재 아티스트 토미 웅거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토미 웅거러 스토리', 그리고 그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달사람'을 상영한다. 영화 '비밀과 거짓말'(1996)을 연출한 마이클 리 감독이 영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윌리엄 터너의 마지막 25년을 그린 영화 '미스터 터너'는 인상주의의 시작이자 풍경화의 셰익스피어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지만, 장작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삶을 스크린에 담았다. 화가의 인생을 다룬 작품인 만큼 아름다운 풍경과 멋진 그림,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으로 시선을 모은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이름난 동화작가였던 토미 웅거러, 박쥐, 문어, 뱀 등 '비호감' 동물들을 동화 속 주인공으로 적극 캐스팅해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풍자했던 그는 최고의 위치에 있던 중 돌연 종적을 감추었다 20여년 뒤인 2008년 동화작가로 다시 돌아왔다. 브래드 번스타인 감독은 그의 퇴장과 복귀의 미스터리에 대한 궁금증을 다큐멘터리로 풀어내면서 작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음악을 활용한 빠른 편집, 토미 웅거러가 탄생시킨 캐릭터들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삽입 등을 통해 인물의 개성을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토미 웅거러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달사람'은 단순하지만 화려한 영상미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웅거러가 직접 내레이션에 참여하기도 했다.

Special Events...



❖ 을숙도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련 모집안내

을숙도문화회관은 2015년 기획공연과 관련 3개 부문, 4개 사업에 대해 공개모집한다. 우선 지난해 오페라 '투란도트'에 이어 2015년 7월 예정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오페라 '메리 위도우(Merry Widow)'의 주, 조역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부산 출신 또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로, 4년제 대학 성악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프라노 2명, 테너 1명, 바리톤 1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을숙도문화회관의 대표 브랜드 공연 '을숙도 명품콘서트' 하반기 무대에서 연주될 창작관현악곡도 이번에 공개모집한다. 지역 작곡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무대로, 부산 출신 또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이면 응모 가능하다. 정규 2관 편성, 약 8분 정도의 창작 관현악곡으로, 2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6월 합창대축제로 펼쳐지는 2015 을숙도 해피콘서트에 출연할 성인합창단 8개팀도 모집한다. 관심이 있는 합창단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2016년 사하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오페라 제작 앞서 2월 24일까지 역사적 인물을 추천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을숙도문화회관 공연기획팀 220-5805, 5812~3.

❖ 부산박물관 2015년 교육프로그램

부산박물관에서는 2015년 올해 부산시민들이 역사·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박물관을 관람한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21가지 교육프로그램으로, 각 프로그램은 유아에서부터 학부모, 장애인 등 참여 대상의 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부산박물관의 인기 프로그램인 박물관 투어와 토요박물관교실은 편성일과 참여인원을 조정해 진행한다. 부산박물관과 소속 박물관을 버스를 타고 하루에 돌아보는 '박물관투어'는 기존 셋째,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개최한다. 매주 넷째 토요일에 진행되는 어린이 체험교실 '토요박물관 교실'은 기존 25개 팀에서 30개팀으로 모집인원을 확대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역사이야기'는 유아, 초등학생(단체),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높이에 맞춰 4가지 테마로 진행한다. '드림드림 박물관 교실'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박물관을 찾은 기회가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체험교실이며, '조용한 수다'는 청각, 지체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7월에 열리는 제31기 역사문화강좌, 9월에 열리는 제15기 박물관대학도 예년에 이어 계속된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박물관 교육홍보팀 610-7141, 7147, museum.bus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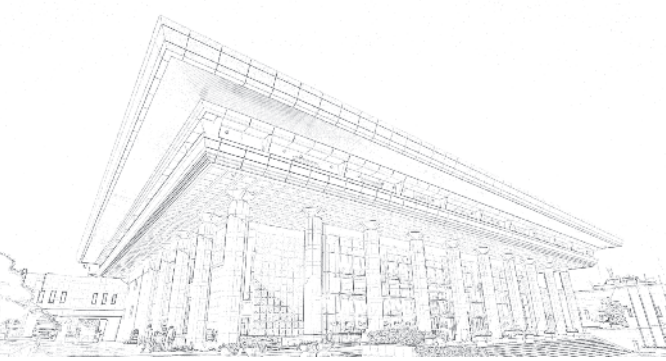


❖ 스페이스 움 봉강좌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움이 2015년 새봄을 맞아 다양한 강좌로 시민과 만난다.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강사 감미현이 진행하는 '유럽의 문화유산을 찾아 역사 속으로'가 펼쳐진다. '고대, 지중해의 세계로'라는 부제로 ▲1강: 에게해 문명- 크레타 크로노스 궁터와 미케네(트로이전쟁), ▲2강: 그리스 문명- 문화쇄국주의와 파르테논신전(폴리스), ▲3강: 로마 문명- 세계제국의 문화와 콜로세움, 카라칼라 공중목욕탕, 그리고 '중세, 서유럽, 그 1000년의 역사'라는 부제로 ▲4강: 종교가 스며든 대성당과 수도원- 피사, 노트르담, 폰트네, 마울브론, ▲5강: 문화와 경제의 시작: 城의 세계- 고성과 성벽도시 카르카손, 케어필리 순서로 진행된다. 3월 17일부터 4월 14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미술강좌 '미술을 통해 진정된 나(我) 표현하기'가 펼쳐진다. 초등학생 4학년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좌는 ▲1강: 선(線)_감정의 표현, ▲2강: 꼴라주_내가 보는 나의 모습, 남이 보는 나의 모습, ▲3강: 색채 심리, ▲4강: 색의 이해와 생활에의 응용(1차시)_톤의 이해, 크레파스의 이해, 색의 표현, 마리로랑생의 작품모사, ▲5강: 색의 이해(2차시)_작품완성 및 평가 순서로 진행되며 미술교사이자 미술치료사인 강지호 씨의 강의로 진행된다. 두 강좌 모두 1강좌당 수강료 1만원이며, 사전에 5강좌 모두 등록시 10%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스페이스 움 557-3369, www.spaceum.kr.

NEWS



❖ 2월 찾아가는 예술단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2월 공연이 확정 되었다. 2월에는 7일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부산시민을 위한 감사음악회'를 시작으로 모두 세차례 펼쳐진다.

일정

- 2월 7일(토) 19: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부산시민을 위한 감사음악회'(출연/소년소녀합창단)
- 2월 26일(목) 13:30 누리마루
내사랑 부산공연 '이전기관 환영 및 부산시대 선포식 공연'(출연/교향악단)
- 3월 3일(화) 09:00 부산지방국세청 강당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납세자의 날 행사공연'(출연/교향악단)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6)

❖ 부산시립무용단 2015 복지관 순회공연



평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이웃들을 찾아 신명나는 우리 전통춤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2015년 복지관 순회공연이 2월 26일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3월 6일까지 총 12회 진행된다. 이번 복지관 순회공연에서는 우리춤체조, 동래학춤, 부채춤, 진도북춤, 분홍할미, 풍류장고, 태평무, 흥부&놀부 등 우리 전통춤의 멋과 신명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일정

- 2월 26일(목) 오전 10:00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
- 2월 26일(목) 오후 3:00 수영구노인복지관
- 2월 27일(금) 오전 11:00 남구노인복지관
- 2월 27일(금) 오후 3:00 동원종합사회복지관
- 3월 2일(월) 오전 10:30 반석종합사회복지관
- 3월 2일(월) 오후 2:00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 3월 3일(화) 오전 10:30 금곡종합사회복지관
- 3월 3일(화) 오후 1:00 동구자성대노인복지관
- 3월 4일(수) 오전 10:30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 3월 4일(수) 오후 2:00 덕천종합사회복지관
- 3월 5일(목) 오후 3:00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 3월 6일(금) 오후 12:00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2015년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개강



실기 강좌 추가 개설

지난해 한국문예회관 공모사업 '토요오감놀이터 열씨구락'을 비롯해 '장일범 명작 오페라속으로', '어린이 오페라교실' 등으로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의 시작을 알린데 이어 2015년에는 더욱 다양한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나다.

예술아카데미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장일범 '명작 오페라 속으로' 두 번째 강좌 외에 어렵게 느꼈던 미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배선주의 '인문학으로 배우는 서양미술사-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중심으로'와 피아니스트 박종화의 '피아노, 이야기를 만나다'가 새롭게 부산시민들을 찾아온다. 올해는 특히 예술아카데미 외 예능아카데미를 신설, 유명 연주자와 부산시립예술단 단원이 직접 실기 강좌를 지도하며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계획이다.

예능아카데미는 3월부터 5월까지 1기 강좌를 시작, 12월까지 악기별로 총 36강을 진행하며,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9개월의 강습을 마친 후 수강생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를 위해 오랜만에 부산을 찾은 테너 엄정행이 2015년 매주 목요일 '엄정행 노래교실'로 부산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예술아카데미

- 장일범 '명작 오페라 속으로 2'
3월 23일~6월 15일 매주 월요일 오후 5:00(10강)

- 배선주 '미술의 인문학적 접근-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중심으로'
3월 24일~6월 16일 매주 화요일 오후 2:00(12강)
- 박종화 '건반위의 이야기'
3월 26일(목) / 6월 19일(금) / 8월 4일(화) / 12월 11일(금)

예능아카데미

- 박성희와 함께 하는 풍류마당
우리소리에 관심 많은 일반인들을 위한 흥겨운 한낮의 풍류 한마당
3월 9일~6월 22일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엄정행 노래교실
최고의 성악가 엄정행 선생과 함께 하는 우리가곡과의 만남
3월 12일~5월 28일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서양음악실기-클라리넷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목관악기 클라리넷 강습
3월 11일~ 5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후 6:00 / 7:30
- 서양음악실기-클래식 기타
우리나라 최고의 클래식기타리스트와 함께 하는 클래식기타 강습
3월 13일~ 5월 29일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전통실기-가야금
3월 10일~6월 2일 매주 금요일 오후 4:30 / 6:00 / 7:30
- 전통실기-사물놀이
우리가락의 흥과 멋을 전해줄 흥겨운 사물놀이 강좌
3월 12일~5월 28일 매주 목요일 오후 4:30

- 접수 : 예능(실기) 아카데미 2.9(월)~ 3.4(수)
예술(이론) 아카데미 2.23(월) ~ 3.18(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전화, 이메일(bsculture@naver.com)
 -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 접수처 및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대관심의위원회 대관심의기준 안내

부산문화회관에서는 갑작스런 공연 취소로 인한 관람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성숙한 공연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관심의기준(대관자격 정지)을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하오니
대관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관 제한사항 및 자격정지

1. 대관 제한사항

- 초·중·고등학생(예술학교 제외)의 학예발표회성 공연, 경연대회
- 특정단체의 집회성(정치, 종교, 친목 등) 위주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문화회관에 심의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
-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연 및 전시
-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관자격 정지

- 이전 공연 및 전시 시 질서 문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1년간)
- 1년 동안 2회 이상 자체사정으로 취소한 경우(1년간)
- 공연일전 1월 미만 기간에 자체사정으로 취소한 경우(1년간)
- 공연일전 1월~2월 이내 기간에 자체사정으로 취소한 경우(6월간)
- ※ 기간 계산 : 사유발생일 익월 1일부터 기산

전시실 경합 시 대관 심의 우선 기준

장르별 우선순위

1. 서양화, 한국화, 판화, 서예, 조각, 공예 디자인 등 순수 예술작품 전시
2. 사진, 꽃꽂이, 수석 전시

- 국·내외 저명 단체(개인)의 전시
- 개인보다 단체 전시
- 학생보다 성인 전시
- 대중전시실 동시 전시 및 장기 전시
- 문화회관에서 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개인) 전시

극장 경합 시 대관 심의 우선 기준

장르별 우선순위

1. 오페라, 뮤지컬, 발레,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2. 국·내외 저명 전문예술단체의 순수예술공연

- 아마추어 공연보다는 전문예술인의 공연이 우선
- 단기공연보다는 장기공연이 우선
- 개인공연보다 단체 공연이 우선
- 학생 공연보다 성인이 주축이 된 공연이 우선
- 공연 경력이 많은 단체 및 개인 공연이 우선
- 문화회관에서 공연 실적이 많은 단체 및 개인 공연이 우선
- ※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단체 또는 개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대관 결정

- 대관문의 / 부산문화회관 운영담당(051-607-6051~4)

2015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모집

» 모집부문·인원·전형과목

구분	모집부문 및 인원	전형과목 (실기 2차)	전형방법
청소년 교향악단	수석지휘자 1명	1.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제1악장 (출판사 : kalmus) 2. 모차르트 마술피리 서곡 (출판사 : kalmus) ※ 2곡 중 1곡 추천	▶ 실기 1차 (DVD 및 서류심사) ▶ 실기 2차 (지휘심사)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해당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격

공통사항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 재(남자의 경우)
- ▶ 해당 전공(지휘)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 전형(모집) 방법

- ▶ 실기 1차(DVD 및 서류심사) : 심사위원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 평균 취득 점수 산정하여(평균90점 이상) 최고득점자 3명 이내 선발
- ▶ 실기 2차(지휘심사) : 실기 1차 합격자 가운데 심사위원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취득 점수 산정
- ▶ 면접 : 실기 2차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
- ▶ 최종합격자 선정 : 실기 2차(80%) + 면접(20%) 합산 최고득점자
- ▶ 동점자 처리 : 1) 1·2차 실기 합산점수 고득점자
2) 연장자 순으로 결정
- ※ 해당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실시
-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 결격사유 또는 퇴사, 계약 미체결 등의 사유로 결원일 경우에는 수석지휘자의 요청에 따라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평균 9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함)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5년 2월 6일(금)~2월 16일(월)
- 접수 안내사항
-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공휴일·토·일요일은 제외
-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44)
(우608-811)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내 공연과(공연담당)
- ※ 응시원서 우편접수 시 봉투에 '응시원서' 필히 기재,
방송용 봉투첨부(우표첨부 및 주소기재)

» 제출서류

- 응시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남자, 병적확인용), 최종학력증명서(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본 포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DVD 제출

» 세부 전형일정

1차 전형		2차 전형	면접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DVD심사	발표	지휘심사		
2.24(화) 14:00	2.24(화) 20:00	2.26(목) 14:00	2.26(목) 16:00	2.27(금) 18:00

※ 접수인원에 따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 결격사유 또는 퇴사, 계약 미체결 등의 사유로 결원일 경우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초 위촉 1년, 관계 전문가 5명 이내의 자문 및 성과평가 후 2년 이내에 서 2회에 한하여 재위촉
- 보수 및 복무 등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동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정에 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 취소가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1차, 2차 합격자(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사항 없음.

» 문 의 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 공고란 참조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44)

2015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3월 개강



2015년 더욱 풍성해진 고품격 아카데미

장일범 ‘명작 오페라 속으로’ 3.23~6.15 매주 월요일 오후 5:00(10회)

역사와 문화, 지리, 신화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종합예술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일범의 명작 오페라속으로2

모집인원 : 80명 수강료 : 12만원

- Giordano Andrea Chenier, Bizet Carmen
- Donizetti Lucia di Lammermoor
- Mozart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 Puccini Tosca , Verdi La Traviata
- Puccini Turandot, Bellini La Sonnambula 벨리니 몽유병의 여인
- Verdi La forza del destino, Verdi Aida

배선주 ‘미술의 인문학적 접근’ 3.24~6.16 매주 화요일 오후 2:00(12강)

– 고프리치 서양미술사를 중심으로

어렵게 느꼈던 미술에 쉽게 다가가기 위한 첫 도전. 세계적인 명저 E.H 고프리치의 서양미술사를 배선주의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모집인원 : 50명 강사 : 배선주(색채학 박사, 섬유 미술가, 미술 교육가)

수강료 : 12만원

박종화 ‘건반위의 이야기’ 3.26 / 6.19 / 8.4 / 12.11

음악과 피아노를 따라 살아온 낭만적 음악 유목민, ‘천둥처럼 나타난 한국의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 ‘불멸의 거장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를 능가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함께 하는 유쾌한 피아노 이야기

모집인원 : 150명 장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수강료 : 회당 2만원(4회권 7만원)

접 수 : 예능(실기) 아카데미 2.9(월)~3.4(수) 예술(이론) 아카데미 2.23(월) ~ 3. 18(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전화, 이메일(bsculture@naver.com)

–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 전 강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접수처 및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최고의 연주가들과 소통하는 명품 실기 강좌 예능아카데미 1기 모집

1기 3~5월, 2기 6월~8월, 3기 9월~12월

서양음악실기-클라리넷 3.11~5.27 수요일 오후 6:00 / 7:30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목관악기 클라리넷 강습

모집인원 : 12명 수강료 : 12만원(악기 개인 준비, 임대가능) 장소 : 국제회의장 3층

강사 : 이민호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서양음악실기-클래식 기타 3.13~5.29 금요일 오후 2:00

최고의 기타리스트 고충진과 함께하는 클래식 기타강습

모집인원 : 12명 수강료 : 12만원(악기 개인 준비/통기타 가능) 장소 : 국제회의장 3층

강사 : 고충진 클래식기타리스트

전통실기-가야금 3.10~6.2 금요일 오후 4:30 / 6:00 / 7:3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현악기 가야금을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모집인원 : 12명 수강료 : 14만원(악기 제공) 장소 : 국제회의장

강사 : 오은영 가야금연주가

전통실기-사물놀이 3.12~5.28 목요일 오후 4:30

우리가락의 흥과 멋을 전해줄 흥겨운 사물놀이 강좌

모집인원 : 15명 수강료 : 12만원(악기제공) 장소 : 국제회의장

강사 : 전학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와 함께 하는 풍류마당 3.9~6.22(총 15강) 월요일 오후 2:00

우리소리에 관심 많은 일반인들을 위한 흥겨운 한낮의 풍류 한마당

모집인원 : 30명 수강료 : 12만원 장소 :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강사 : 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단원

엄정행 노래교실 3.12~5.28 금요일 오후 2:00

최고의 성악가 엄정행 선생과 함께 하는 노래교실로 작곡가와 시와 노래에 담긴 숨은이야기

모집인원 : 60명 수강료 : 12만원 장소 : 국제회의장

강사 : 엄정행 성악가

오즈의 마법사

송승환의 명작동화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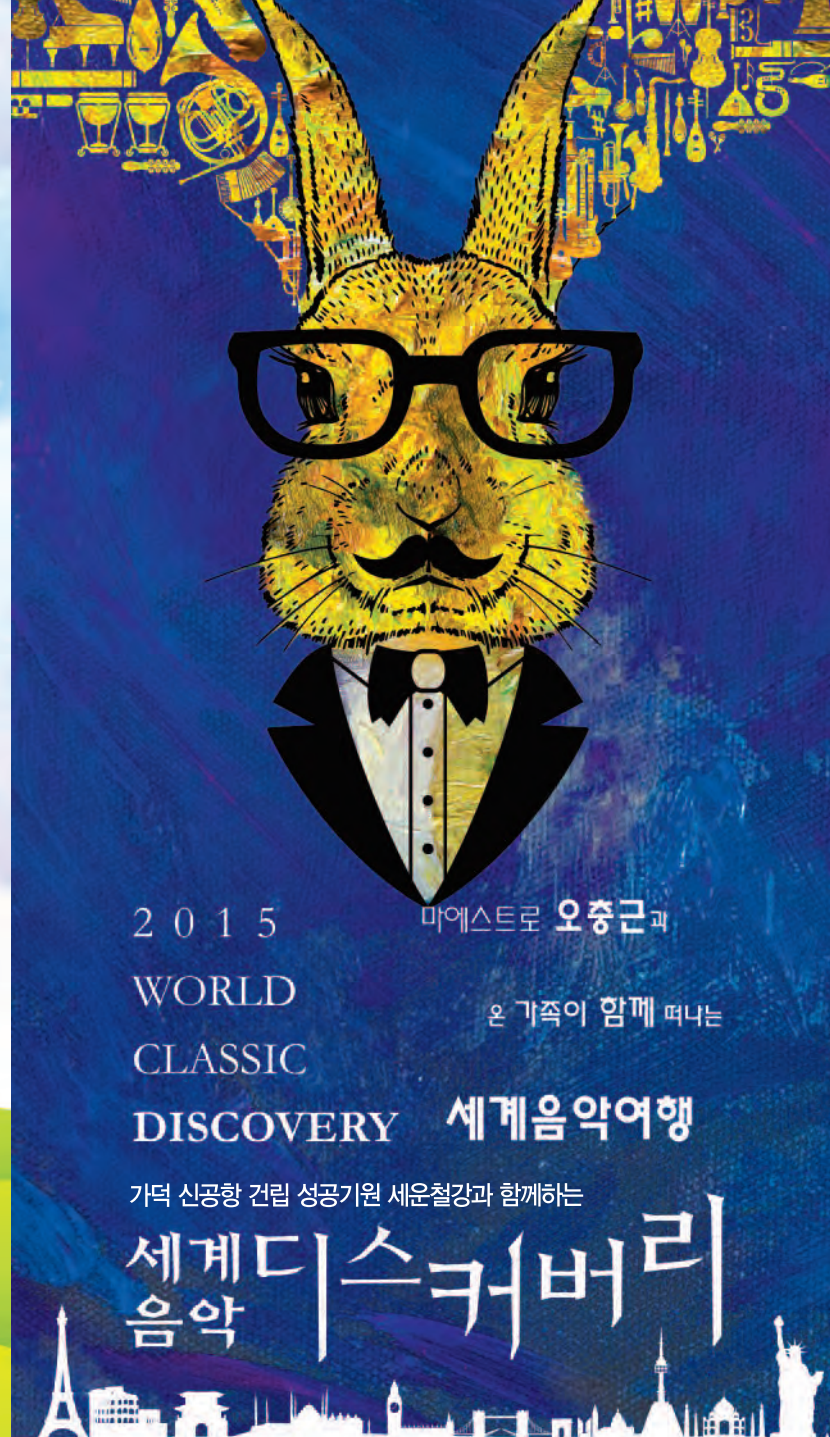


4.11(토) 2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무대로 물려하는 최고의 명작 동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찾으러 떠난 도로시 세 명의 친구들이 펼치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컨자스 농장에 살던 꼬마아가씨 도로시!
바람이 세계 불던 어느 날,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마술나라
먼치킨시로 날아가게 되었어요.

제작 ㈜피엠씨네트웍스

이 공연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WORLD CLASSIC DISCOVERY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가덕 신공항 건립 성공기원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세계디스커버리
음악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WCD
오충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4월 25일 [프랑스] / 6월 13일 [아메리카대륙]
7월 25일 [독일] / 10월 24일 [오스트리아] / 12월 26일 [이탈리아]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문의 | BSO 051-621-4577 www.bso21.com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후원 세운철강

후원 102굿모닝백어안과 고운세상 김양재 피부과 의원 GALLERY Jem HAEUNDAE GRAND HOTEL

이 공연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4.30(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KBS교향악단

2014년 세계적인 지휘자 요엘 레비(Yoel Levi)가
음악감독을 맡으며 새롭게 도약
영국 로열필하모닉 상임지휘자를 지낸 발터 벨러 지휘
4세에 비엔나 국립음악대학 예비학교에 최연소로 입학,
음악계를 놀라게 한 바이올린 신동 김윤희 협연

지휘 / 발터 벨러(Walter Weller)

바이올린 / 김윤희

프로그램

- 스메타나 / 몰다우
- 생상스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이 공연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리랑 아! 아리랑”

5.27(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소리꾼 오정해,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헝가리출신 피아니스트 에르노 페어,
일본오사카음대 교수 카타오카 리사,
그리고 지역의 유명성악가등과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음악 축제

지휘 / 홍희철

연주 / 부산국악오케스트라(구,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

협연 / 오정해(소리), 유진박(바이올린), 에르노 페어(피아노)

카타오카 리사(고토), 남순천, 윤선기(소프라노)

김창돈, 오세민(바리톤)



이 공연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팔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연극 '연애의 목적'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애정방자사기극'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내 사랑 은경씨'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별어국'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1.1~

남부산우체국송인
제265호

CULTURAL SCHEDULE		2015 February 2	
1	16:00 박현정 클래스 음악회 소극장 무료/박현정(010-3861-8494)	15	16:00 2015 겨울음악 페스티벌 소극장 무료/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010-2802-2883)
2	19:30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가족음악회'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17	19:30 TDC 자선 엔젤단 결식아동돕기 기금마련 자선음악회 소극장 무료/금성빈(010-4248-6828)
3	19:30 새봄을 여는 4인 음악회 'To Voice to Klavier' 중극장 균일 3만원/오세민(010-2330-0994)	18	17: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설맞이 국악한마당' 중극장 무료/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2123)
6	19:30 부산시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부산광역시 남구청(607-4067)	24	19:30 러브 바이올린 제11회 정기연주회 소극장 무료/김윤영(010-3873-8757)
7	19:00 부산시민 초청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사랑과 감사의 신년음악회 'Together' 대극장 무료/월드비전(862-9090) 16:00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금관5중주' 소극장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2)	25	14:30 EBS 모여라 동동댕 16:30 대극장 19:00 무료/EBS(02-526-2795) 15:00 김수현 · 고소은 피아노 독주회 소극장 무료/참기획(010-4016-7477)
8	19:00 M+ BRAIN 무용단 정기공연 '실종' 중극장 5천원 · 3천원/엠브레인 댄스컴퍼니(808-1177) 16:00 2015 겨울음악페스티벌 소극장 무료/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010-2802-2883)	26	19:30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모차르트' 대극장 무료/KNN(850-9344)
10	19:30 무지카 비바 제22회 정기연주회 'Happy 2015 with 왈츠' 대극장 균일 2만원/박경희(010-2888-0292) 19:00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최윤희(010-4171-7610)	27	19:30 토브남성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토브남성합창단(646-4933, 010-8610-3930)
12	19:30 부산시립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민요와 애창곡의 향연' 대극장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28	17:00 소프라노 디미트라 테오도슈와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대극장 균일 3만원/우리아트(920-9545) 18:00 부산시 의사회합창단 '메디코러스' 창단연주회 중극장 초대/메디코러스(647-0378)
13	19:30 부산시립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민요와 애창곡의 향연' 대극장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3/1	17:00 내츨러리 세븐 내한공연 in 부산 대극장 9만 9천원 · 7만 7천원 · 5만 5천원 · 3만 3천원 지니콘텐츠(02-568-8831)
14	18:00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초대/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627-8088) 16:00 토요일상설무대-젊은소리쟁이 '맞이와 푸리 II' 소극장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2)	2~6	19:30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소극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3D문화유산답사전 '아름다운 우리 국토' 1월 4일(일)-3월 1일(일) 대전시실 관람시간 오전 10:30 ~ 오후 8:00(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입장료 일반 1만 2천원 · 학생 9천원 · 미취학아동/장애인/경로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현장카드 제시시 20% 할인) 문 의 휴엔마크스 070-7617-4004, 607-6230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월일 점심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오피스텔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1층
051)622-1456

하나문기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빌리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2층
051)626-2392

연극 '연애의 목적'

1.8(목)-3.8(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2/19 오후 6: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공연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양극장 스테이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양극장 1568-2757

연극 '애정박자시각극'

1.8(목)-3.28(일) 오후 5:00, 8:00
(2/19 오후 5: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공연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양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양극장 1568-2757

연극 '내 사랑 은경씨'

1.7(수)-3.8(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공연 3만원
장 소 : 기원아트홀 2관
문의 및 예매 : 문화락 1600-1602

연극 '뿔여강'

2.13(금) 오후 8:00
2.14(토) 오후 4:00
입장권 : 공연 2만 5천원
장 소 : 공작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스극장 611-8518

CULTURAL SCHEDULE

2015 February

1	16:00	Park Hyeonjeong Class Concert Small Theater Free Park Hyeonjeong(010-3861-8494)
2	19:30	2015 Busan Music Festival 'Family Concert' Grand Theater 50,000/40,000/30,000 Busan Music Festival(740-5833)
3	19:30	4 Concert 'To Voice to Klavier' Medium Theater 30,000/Oh Semin(010-2330-0994)
6	19:30	The 6th Regular Concert of Busan Nam-gu Boys&Girls Choir Medium Theater Free/Busan Nam-gu Office(607-4067)
7	19:00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New Year's Concert Grand Theater Free/World Vision(862-9090)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2)
8	19:00	The Regular Performance of M+ BRAIN DANCE COMPANY Medium Theater 5,000/3,000 M+ BRAIN DANCE COMPANY(808-1177)
	16:00	2015 Winter Music Festival Small Theater Free/Min Soyeon(010-2802-2883)
10	19:30	The 22th Regular Concert of Musica Viva Grand Theater 20,000/Musica Viva(010-2888-0292)
	19:00	The 6th Regular Concert of Centum Global Orchestra Medium Theater Free/Choi Yun hwa(010-4171-7610)
12	19:30	The 155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Grand Theater 10,000/7,000/5,000/B.M.C(607-3141~2)
13	11:0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5 The Well-being Concert t 'Oper Hansel & Gretel' Medium Theater 10,000/B.P.O(607-3111~3)
14	18:00	The 16th Regular Concert of Inkorean Youth Orchestra Medium Theater Invetation/Inkorean Youth Orchestra(627-8088)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2)

15	16:00	2015 Winter Music Festival Small Theater Free/Min Soyeon(010-2802-2883)
17	19:30	Charity Concert With TDC Small Theater Free/Keum Seongbin(010-4248-6828)
18	17:00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New Year's Concert' Medium Theater Free/B.M.T.O(607-3121~2)
24	19:30	The 11st Regluar Concert of Love Violin Small Theater Free/Kim Yunyeoug(010-3873-8757)
25	14:30	EBS 'Gather Ding Daeng Dong' Grand Theater
	16:30	Grand Theater
	19:00	Free/EBS(02-526-2795)
	15:00	Kim Suhyeon · Ko Soeun Piano Reciral Small Theater Free/Cham Management(010-4016-7477)
26	19:30	Kanglim Cultural Foundation Classic Travel for Youth 'Mozart' Grand Theater Free/KNN(850-9344)
27	19:30	The 8th Regular Concert of Tov Choir Medium Theater Free/Tov Choir(010-8610-3930)
28	17:00	A Night at the Opera Arias With Soprano Dimitra Theodossiou Grand Theater 30,000/Woori Art(010-5555-3825)
	18:00	The 1st Regular Concert of Busan Doctor Choir 'Medi Chorus' Medium Theater Free/Medi Chorus(647-0378)
3/1	17:00	A Cappella group 'Naturally 7' Busan Concert Grand Theater 99,000/77,000/55,000 33,000/Genie Contents(02-568-8831)
2~6	19:30	The 52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Company Small Theater 10,000/B.M.T.C(607-3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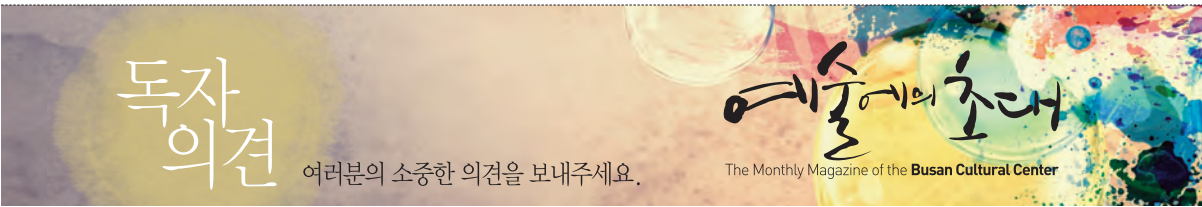
3월 테마여행 신청

테마여행지 추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예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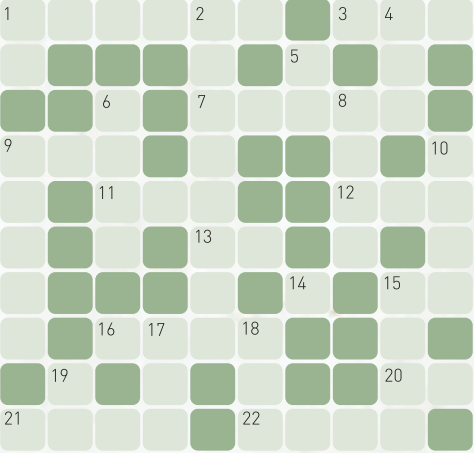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지난호 정답

을	미	년			이		설	빈	
속			스	크	루	지		수	
도	니	체	티		마		아	사	달
			분					랑	
라	이	운	킹			상		의	
마		고		최	후	의	만	찬	
		지	천	명		원		가	훈
이	순	신		희					민
케			향		판	소	리		정
아	마	데	우	스		한		청	음

1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민지(연제구 법원북로) 박영애(남구 동제당로) 손영재(남구 유엔평화로) 이혜정(연제구 중앙대로) 윤인숙(기장군 기장대로)	큰집 식사권	김광열(부산진구 양지로) 김미정(부산진구 백양대로) 윤정인(영도구 변영길) 이귀숙(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이소영(동래구 총렬대로)
도서 음악의 기쁨 3	김재은(동래구 총렬대로) 박미정(부산진구 전포대로) 송숙희(사하구 낙동대로) 이정미(북구 낙동대로) 최동희(기장군 정관면)	조은극장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김호은(서구 고운들로) 박판태(북구 화명신도시로) 조미숙(해운대구 장산로) 한영진(금정구 금사로)

② 영국의 작가 살롯 브론데의 장편소설, 여주인공의 생애를 통해 정열적인 사랑과 인습적 도덕에 대한 반향을 그린 작품이다.

세로열식

- 음악의 어머니, 독일 출생의 영국 작곡가로 런던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로 활약했다. 영국 왕립 음악아카데미를 설립했으며 대표작으로 오라토리오 '메시아', 관현악곡모음곡 '수상의 음악',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등이 있다.
-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 조각, 건축, 도목, 수학, 과학,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재능을 보였으며,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은 그에 의해 완벽한 완성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다. 대표작으로 '모나리자', '성 안나', '최후의 만찬' 등이 있다.
-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 우리나라에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다.
-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최근 인터넷의 대중화로 텍스트를 이용 오오뿐 아니라 음성오오, 화상오오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이것이 활성화되었다.
- 1970~80년대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웨덴 출신의 혼성 팝그룹 '아바(ABBA)'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영국의 뮤지컬.
- 서부극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의 영화배우, 영화 '오크 중사(1941)', '하인(1952)'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두 번 수상했으며, 대표작으로 '7일간의 휴가', '모르코', '무기여 잘있거라' 등이 있다.
- 비극을 봄으로써 마음에 쌓여 있던 우울함, 불안감, 긴장감 등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되는 일.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詩學)'에서 비극이 관객에 미치는 중요 작용의 하나로 들었다.
- 건반 악기의 한 가지로 손풍금이라고도 한다. 주를 상자를 양손으로 자유롭게 잡아당겼다 밀었다 하여 바람을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금속으로 된 리드를 울려서 소리를 낸다.
- 옛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관용적인 뜻으로 굳어 쓰이는 글귀.
- 울릉도에 있던 나라로, 512년(지증왕 13)년 신라의 이사부(異斯夫)가 정복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
- 축제나 큰 행사에 앞서 그 전날 밤에 베푸는 잔치.
- 대한민국 수도.

부산시립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민요와 애창곡의 향연

지휘 오세종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피아노 이승윤, 이경미

프로그램 The Hawaiian Wedding Song / When I dream / 너에게 난, 나에겐 난
친구여 / 소나무여(독일민요) / 망망 대 초원(러시아민요) / 철로공사(미국민요)
새야 새야(전경숙 편·작곡) / 밀양랩소디(조우현 편곡) / 정선아리랑(박재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 봄의 소리 왈츠

2015. 2. 12(목)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